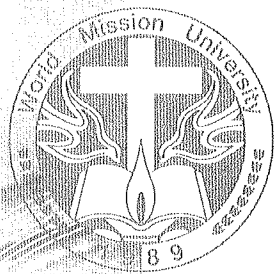
2008
<CDE 자료>
제17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University
www.wmu.edu

목 차

1 들어가기

2 학교소식

3 학생논단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최선영, 윤명주
발행일 2008년 5월 31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wmuinfo@wmu.edu

1
들어가기

총장 임동선 박사

지도자의 조건인 지성, 덕성, 영성을 두루 갖추십시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국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17회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여러분들을 졸업시키신 부모님과 가족의 노고, 신학교에서 섬기는 교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훈련받고 일선으로 떠나는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지성과 덕성, 영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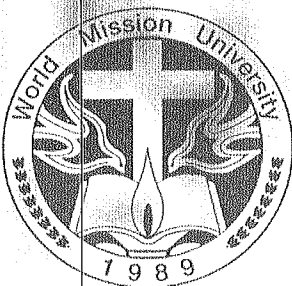
첫째로 지도자는 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겸손하며 이성과 명예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모범이 됨으로써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고매한 인격과 풍성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과학 기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과 독특함을 존중하는 목회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영성이 깊어야 합니다. 영성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과 빌립보서 4:13의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인도할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지도력을 갖춰야 합니다. 졸업 후에도 지성과, 덕성, 영성을 계속해서 가꾸며 무엇보다도 성령충만함을 간구하여 깨끗하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안목과 리더쉽으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지구촌 곳곳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총장 강준민 목사

성실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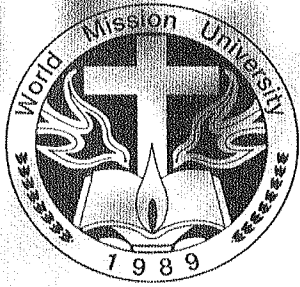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 입니다. 이 단어 속에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실은 보배로운 성품입니다. 성실 자체가 최상의 지혜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성실보다 나은 지혜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졸업하는 학우들에게 나누고 싶은 사역의 비밀이 있다면 성실과 공교함입니다. 성실은 성품이고, 공교함은 실력입니다. 성품과 실력이 균형을 이룰 때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성품과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성품이 좋아도 무능하면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성품과 실력,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좋으면 실력은 후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쌓는 비결이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 가운데 가장 근본을 이루는 성품이 성실입니다. 성실은 진실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총체적인 조화가 성실입니다. 성실처럼 소중한 성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성실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성품입니다. 성실한 성품을 형성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학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아이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성품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세면 누구나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시 78:72).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의 공교함은 그의 성실함의 열매였습니다.

성실한 성품이 중요한 것은 성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은 성실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어느 분야에서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46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작 펄만 (Itzhak Perlman)은 미국에 건너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연습에 두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핵심이 되는 말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 없이 '연습 (practice)'이라고 말하고 싶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성실함에 있습니다. 성실한 준비, 성실한 학습, 성실한 연습이 공교한 손길을 갖도록 도와주고 결국 탁월함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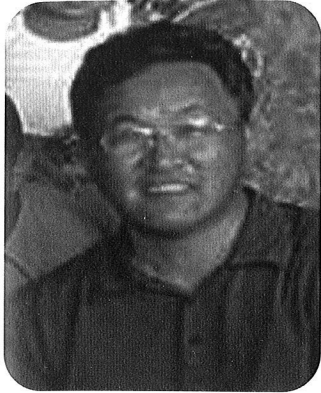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성실한 훈련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이 어려운 것은 그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실은 자주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실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까닭은 그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의 길을 끝까지 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실은 화려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그러나 성실의 색깔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실에는 황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적인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의 영성의 뿌리는 성실에 있었습니다. 성실은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 위해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단 6:10). 다니엘은 성실한 신앙, 성실한 인격, 성실한 기도, 성실한 행동으로 승리했습니다.

성실성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고 말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 입니다. 이 단어 속에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실은 보배로운 성품입니다. 성실 자체가 최상의 지혜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 성실보다 나은 지혜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저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성실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성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성실한 성품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성실한 성품을 가꾸는 중에 탁월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성실과 공교함에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십시오 . 졸업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실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졸업하는 학우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빕니다.

강준민 목사 드림

멕시코 유동훈 선교사

유동훈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멕시코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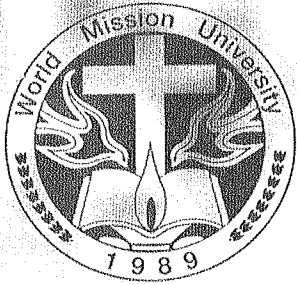
지난 멕시코 선교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봅니다. 또한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 아나쁘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판자 집들이 블록화되고, 유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분주해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되어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국경도시가 그러하듯이 후아레스는 마약과 살인이 이어져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던 알레한드라 가족이 아나쁘라에 둥지를 틀었었는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 멕시코 시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던 가족, 하루 하루 이어가는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따스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3:16)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눈물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직 덜 익은 과일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자도 사용하셔서 그 안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받으시는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역과 앞으로 행할 사역을 위하여 계속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Tiempo con Dios – 새로 스페니쉬로된 Quiet Time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카톨릭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공부, 성경암송, 제자훈련, 영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크리스챤을 동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훈련과 영어 사역을 감당하고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서사역 – 성경, 설교, 찬양 CD, 제자훈련, 영어, Quiet Time (Tiempo con Dios), 소책자, 전도지 등을 사용하여 문서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세워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하여 책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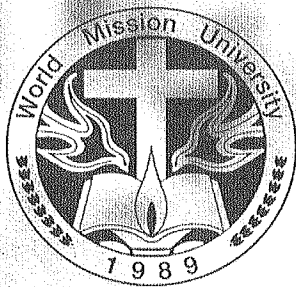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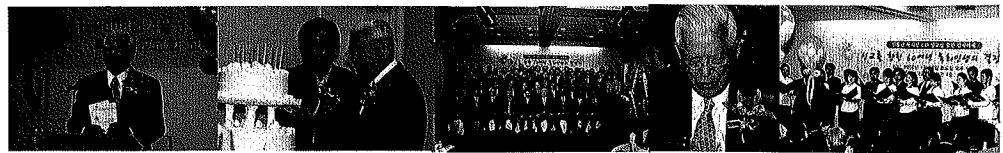
단기선교 –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선교 현지를 보고 이해합니다. 선교의 다양성을

알게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되고 중보기도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사역 –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으로 섬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섬기는 아나쁘라는 하루 한끼로 연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잊혀져 있다는 아픔은 더욱 큽니다.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멕시코 교회 후안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4년의 눈물의 기도와 3년의 기다림 그리고 그와 성도의 헌신과 미국 선교 단체의 도움으로 지금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내부 칠과 외벽 칠 공사 그리고 성전 바닥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안 목사의 헌신과 처음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현지 교회와 인디오 사역, 목회자와 신학생 후원 및 훈련 사역, 마약 재활 훈련사역, 가정 사역, 기술훈련, 언어 훈련 등 필요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주 안에서 멕시코 영혼을 섬기는 유동훈, 혜명, 소희 드림

2 학교소식

임동선 총장 CD 설교집 출간 및 감사예배

임동선 총장님의 CD 설교 전집 출간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4월 19일 동양선교교회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임총장님의 가까운 지인들이 참가한 이 날 출판 감사예배에서 강준민 목사님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사도'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임동선 목사님은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시고 7개의 신학대학교와 35개의 지 교회를 세우시고 57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임 목사님은 40이 넘은 나이에 Ph.D.를 받으시고 적지않은 저서를 남기셨으며 후진 양성을 위해 신학대학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열심을 다하시는 탁월한 영성과 믿음의 선배님" 이라고 말했다.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의 석태운 목사님의 축사에 이어 임총장님은 답사에서 "37년 전 이민 목회의 꿈을 가지고 교회을 세운 이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60여년의 목회 기간동안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희생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설교집은 임동선 총자님이 이민 목회 중에 행한 설교 580여 편이 담긴 CD 설교 전집과 영한 대조본 선교 전도 설교 모음직인 '이 시대의 희망, 오직 복음' 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임동선 총장 새순교회 초청으로 말씀 전해

임동선 총장님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육사역에 대한 비젼을 내건 새순교회 초청으로 '말씀사랑축제' 에서 '이민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렘29:4~14)' 과 '역경을 축복으로 (롬5:1~6)'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임총장님은 첫날 이민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 것' 과 '어디로 가든지 그 땅에 정을 붙이고 살 것과 희망을 잃지 말고 살 것' 그리고 '의롭게 살아서 그 나라에 유익을 주라' 고 권면했다.

둘째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라는 로마서 5장 4절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한 임 총장님은 골로새서, 로마서, 빌립보서 등 주옥같은 편지가 고난과 환란 속 쓰여 진 것이라며 역경을 통해 축복이 임한다고 전했다. '역경은 강한 정신을 낳는다' 며 '역경이 주는 축복으로 착한 마음이 일게' 되고 '역경을 통해 원만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또한 '역경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킨다' 고 말씀했다.

임동선 총장 제2회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초빙

임동선 총장님이 남가주 한인 목사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샌퍼난도 밸리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 주최로 지난 4월 13, 14일 양일간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남가주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로 선정되어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임 총장님은 남가주지역 목회자들에게 성경적이고 실제적이며 교훈적, 사명적, 희생적인 말씀을 선포하였다.

John Park 교수 WEMA 목사 안수받아

본교의 John Park 교수님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간 열린 제 22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WEMA)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John Park 교수는 지난 1999년 Western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에서 M.Div.를 받고 현재 Fuller Theological Semianry에서 D.Min.과정 중이며 본교에서 Youth and Family Ministry와 영어를 가르치며 Assistant Professor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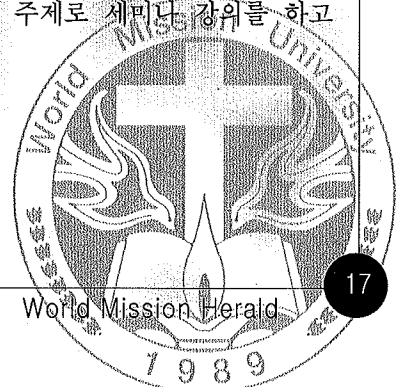
John Park 교수 ATS 연례회의에 참가

John Park 교수님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열리는 ATS 연례회의 (Bienni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and the Commission)에 참가하여 학위프로그램 기준, 협회정책서의 갱신, 장애인과 신학교육에 관한 신규정책 제안서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또, ATS 관계자 및 타 신학대학원 관계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본교가 Accredited Member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손진락 교수 콜롬비아 보고타 단기선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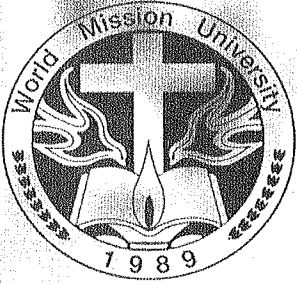
손진락 교수님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 단기선교를 떠난다. 이번 단기선교는 4월부터 5주간 진행된 선교훈련원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으로 중남미선교에 집중하여 훈련받은 참가자들과 함께 떠나게 된다.

신선묵 교수 '칼리지 코스타' 및 '남미 선교사 사모

신선묵 교수님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열리는 칼리지 코스타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다녀올 예정이다. 올해 '이 시대에 바른 길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제로 열리는 칼리지 코스타는 미주지역 한인학생들을 복음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5세 이상 청년들이 참가하는 시카고 컨퍼런스와 25세 미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인디아나 폴리스 컨퍼런스가 있다. 또, 8월 1일부터 7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교회에 방문하여 세미나를 가진 후 이과수에서 열리는 남미 선교사 사모 선교대회에서 '하나님과 친밀감과 우리의 독특성' 라는 주제로 세미나 강의를 하고 본교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금희 교수 '한인세계선교대회' 에 참가

이금희 교수님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시카고 휘튼대학 빌리그레함센터에서 열리는 제 6차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 2008)에 참석하여 본교를 홍보할 예정이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제 13차 세계한인선교사대회와 18세 이상이 참여하는 한인선교사자녀대회도 함께 열리며 총 5,000명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진락교수와 송운철 교수 '선교 한국' 에 참가

손진락 교수님과 송운철 교수님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라는 주제로한국 안산동산교회와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열리는 제 11회 청년학생 선교대회 '선교 한국 2008' 에 참석하여 수천명의 참가자에게 본교를 홍보할 예정이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SFC 주관 선교한국 2008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상담학과, 일반학과 ABHE 승인

임성진 학감님은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ABHE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월드미션대학교는 BA과정의 크리스찬 상담학과 (Christian Counseling)와 일반학과 (General Studies)의 설립을 ABHE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이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과정에 성서연구학과, 크리스찬 상담학과, 일반학과, 음악과의 총 4개 학과를 두게 되었다.

선교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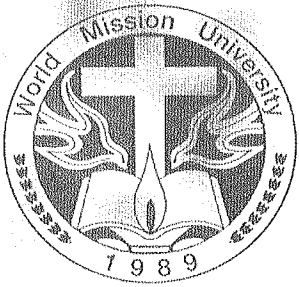
4월 29일 (화)부터 5월 27일 (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월드미션대학교 세미나실에서 5주간 '중남미 선교의 방법과 전략의 최근 동향' 이라는 주제로 2008년 선교 훈련원이 열렸다.

임동선 총장님과 중미선교컨소시움 회장이자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 등을 초청강사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훈련하여 선교사명을 고취시키고 세계 선교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교훈련은 미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었던 중남미 지역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지에서 집중 사역하고 있는 중미 선교 컨소시움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학생회 회장단 선거

지난 4월 22일 학생총회를 통하여 제 19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회장 주익성, 부회장 이현일, 총무 김광영, 회계 김제홍, 서기 강현주, 학술부장 김명구, 체육부장 고정석, 봉사부장 노종주, 예배부장 김현진. 주익성 신규 회장은 "이번 제 19대 학생회는 실질적으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교회사역현장에 투입되는데 도움이되는 학교와 현장의 가교역할을 하겠다" 며 "발로 뛰는 학생회, '동기부여, 동참, 동력' 의 삼동의 학생회를 만들겠다" 고 의욕을 다졌다. 새 학생회는 가을학기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상담학과, 일반학과 ABHE 승인

2008년 봄학기를 맞아 4월 29일과 5월 1일 양일간 월드미션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린 설교대회에는 설교에 관심있는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격려와 응원속에 2007-8학년도 학생회장인 오광탁 학우의 기도로 막을 열었다. 4월 29에는 최명순 (나는 회복될수 있는가

, 누가복음9.23 / 갈라디아서 2:20) , 이현 (이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18:1~18)의 말씀 선포로 은혜와 열기가 더해졌고, 5월 1일에는 이현일 (능력있는자, 사도행전 3:1~10), 주익성 (제자와 사도,요한복음6:66~67)의 말씀이 선포되었다.이 대회는 한국교회 차세대 설교 사역자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도전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 보였고 앞으로 훌륭한 설교를 하자는 기대와 격려가 넘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대회의 수준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이신 교수님들과 참석한 학우들이 같이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장이신 임성진 학감님은 설교대회 참가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더 잘 하라" 고 격려하며 많은 도전을 주었다. 이번 대회는 모든 출연진과 참석자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서 하나됨과 이 세상 속에서 말씀만이 희망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고 차세대 한국 강단을 섬길 사역자들에게 귀한 도전과 점검의 시간이 되었다.

원격교육 및 음악과 직통전화 개통

원격교육 (CDE) 프로그램과 음악과의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관련업무는 직통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대표번호도 한결 기억하기 좋은 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번호와 함께 예전부터 사용하던 213-385-2322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대표 번호 213-388-1000
원격교육 (CDE) 프로그램 213-388-1855
음악과 213-388-2676

2008년도 여름학기 및 가을학기 개설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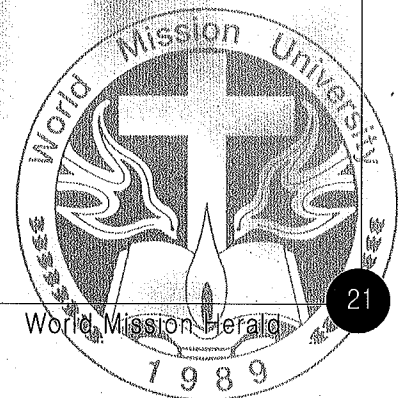
2008년도 여름학기는 5월 12일에 시작되어 6월 6일에 끝나며 선교학개론 (신선묵), 자아발견과 치유변화 (권오균), 기독교 교육 (송운철), 교육목회 (송운철), 헬라어I (김선익), 사회학 개론 (Alex Pak) 등 학부와 대학원에 5개 과정씩 개설되게 되었다.

2008년도 가을학기는 8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 총 52개 강의가 개설되었다.

현재 본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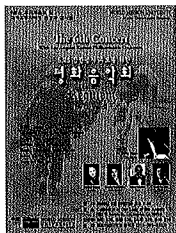
학부과정
공통: 타문화권 상담 (OhGueon Kwon), 마가복음 (UnCheol Song), 컴퓨터 (Paul J. Lim), 상담의 이슈들 (Joshua Pak), 설교실습 (SungJin Lim), 모세오경 (SunIck Kim), 교회성장학 (JinRag Son), 크리스천의 영성 (Sun Young Choi), 교수법 (Paul S. Shin), 예배학 (Dong Sun Lim), 기독교 사상사 (SungJin Lim), 요한복음 (John Park), 영어독해 (Grace K. Lee), 신약개론 (JongSung Nam), 논문작성법 (Edmund K. Rhee), 서양문명사 I (Alex Pak), 초기지도자 형성 (Paul S. Shin), 신약석의 (Andrew Suk)
음악: Sight Singing & Aural Skills II (J. Wright-Fitzgerald), WMU Choir (ImSang Yoon), Diction I (Lisa Sylvester), Counterpoint I (J. Wright-Fitzgerald), 찬양과 예배 (TBA), Music History (Esther Yune), Voice Literature (Kathleen Roland), Piano

Literature (Susan Svrcek)

대학원과정
공통: 타문화권 상담 (OhGueon Kwon), 마가복음 (UnCheol Song), 컴퓨터 (Paul J. Lim), 구약개론 (John E. McKenna), 설교실습 (SungJin Lim), 신약신학 (JongSung Nam), 교회성장학 (JinRag Son), 기독교와 타종교 (JinRag Son), 교수법 (Paul S. Shin), 기독교 윤리학 (SeogWhan Cho), 졸업논문 (SungJin Lim), 신약배경사 (UnCheol Song), 요한복음 (John Park), 사역 철학의 개발 (Paul S. Shin), 교회사 (SooYoung Chung), 논문작성법 (Edmond K. Rhee), 예수의 생애와 교훈 (UnCheol Song), 결혼 가정 상담 (HyeJeong Kim), 신약석의 (Andrew Suk)
음악: WMU Choir (ImSang Yoon), Diction I (Lisa Sylvester), 찬양과 경배 (TBA), Choral Conducting (ImSang Yoon), Voice Literature (Kathleen Roland), WMU Chamber Choir (ImSang Yoon), Choral Literature I (Ariel Quientana)

음악과 소식

2008년 봄학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음악과 학생들의 연주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대강당에서 Brown Bag Recital과 Master Class를 열었습니다. 교수로는 본 대학 음악과 교수인 윤임상교수, Kathleen Roland교수, Robert MacNeil교수, Lisa Sylvester교수가 담당했으며, 외부 강사로는 Mr. Daniel Faltus, Ms. Elsa Marquez의 강의로 학생들에게 많은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29일에는 제 4회 'Student Music Festival' 이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400여명의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감동적인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 된 이 연주회는 음악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한 작품을, 오디션을 통해 선별 된 11명의 성악 전공자들이 8명의 지휘전공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5개의 오페라 작품과 1개의 오페레타 (카르멘, 가면 무도회,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 사랑의 묘약, 라보엠, 박쥐) 의 아리아와 중창, 그리고 합창을 열정적으로 노래해 오페라의 진수와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청중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4월 6일 본 대학 성악과 교수인 테너 Robert MacNeil 연주회 ("Angeles Chorale with Azusa Pacific University Oratorio Choir And Orchestra") 가 Lake Avenue Church에서 열렸고, 4월 12일 본 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소프라노 Kathleen Roland 연주회 ("The Verdi Chorus Silver Anniversary Celebration Spring Concert") 가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ta Monica에서 열려 음악과 교수들이 왕성한 연주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6월 29일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555 W. Temple St., Los Angeles, CA 90012)에서 WMU Chamber Choir 제 6회 정기연주회 "평화음악회" 가 6.25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음악회로 베르디의 작품인 레퀴엠을 연주하게 됩니다. 베르디의 레퀴엠은 우리의 가슴속에 희생과 감동을 주며 살아간 이들을 추모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세계 각 처에서 연주되고 있으며, 국가의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또한 이번 베르디의 레퀴엠 연주회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초연된다는 사실이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의 긍지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발전된 한인사회의 문화를 선보일 아주 뜻 깊은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 이날 지휘에는 본 대학 음악과장인 윤임상교수, 솔리스트에는 성악과 교수인 소프라노 Kathleen Roland, 테너 Robert MacNeil이 함께 출연하게됩니다.

본교 졸업생 18명 2008년 세계선교연합회 목사안수받아

본교 졸업생 17명과 본교 교수 1명이 세계선교연합회 2008년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를 받는다. 안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재, 기회승, 김상중, 김옥균, 김철수, 노명철, 박창식, 송필오, 신중필, 이영섭, 장윤현, 장진호, 정폴, 조승환, 하윤호, 황만기, 허종훈, John Park

■ 목사안수 받는 분들 ■

강석재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큐슈대학 공학 석사, 박사 일본 후쿠오까 선교사	기회승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한국방송통신대학 광주지역 협력전임간사	김상중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대전대학교 수원지역 대표간사
김옥균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지역 협력전임간사	김철수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르키나 파소 선교사	노명철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경원대학교 물리학과 남가주 하나교회 전도사
박창식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남아공 프레토리아 선교사	송필오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문인 사역 책임자	신중필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큐슈대학 정보통신학부 박사 일본 아이즈대학 선교 사역
이영섭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서울지역 ENM 전임 책임 간사	장윤현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U. of Colorado MBA 세계로 선교회 지구간사	장진호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부산대학교 약학대 제약학과 코트디부아르 전임선교사
Paul Chung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JNU 철학석사 박사 과정 중 북인도 한인선교사 협의회 회장	조승환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전남대학교 과학교육-물리 광주지역 협력간사	하윤호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부산대학교 법학과 세계로선교회 캐나다 선교사
황만기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부산대학교 약학대 제약학사 ENM본부 사무국장	허종훈 월드미션 신학대학원 M.Div 큐슈대학 공학박사 관동, 북큐슈 선교 사역	John Park Fuller 신학교 D.Min.과정 Western 신학교 M.Div.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처장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논단
3

신 선 묵 교수

"영적 지도자의 궁극적인 평가 (Ultimate Evaluation)"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성적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잘 평가 받기 위해서이다. 사실은 학생들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도 강의 평가서가 있어서 매 학기 강의를 마치면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제대로 강의 하였는가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 강의를 하면서 이번 학기는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늘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 가지이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

그런데 평가는 남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한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평가하기 이전에 나의 강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때로는 잘했다는 긍지를 가지게도 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자신이 못마땅한 때도 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하고나서도 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한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이 나에 대하여 더 무서운 평가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써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인식해야 할 평가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 사역의 기준을 삼아야 할 평가자는 누구일까?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그의 데뷔 무대를 유명한 연주 홀에서 가졌다. 그의 음악은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에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해주었다. 젊고 부끄러움을 탄 그 젊은이는 무대 뒤로 돌아왔다. 무대 매니저가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인사를 하고 앙코르에 답하여 한 곡을 더 연주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피아니스트는 거절하였다. 그 매니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아가요...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젊은 음악가가 말했다.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발코니에 앉아 있는 저 백발 노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매니져는 무대를 살핀 뒤에 말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저 많은 군중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노인은 무시하고 그냥 나아가서 앙코르를 받아요." 그때 그 음악가가 말했다. "그가 제 선생님이세요." 그 학생은 자기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을 바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기를 즐겨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의식해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열광하여도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때로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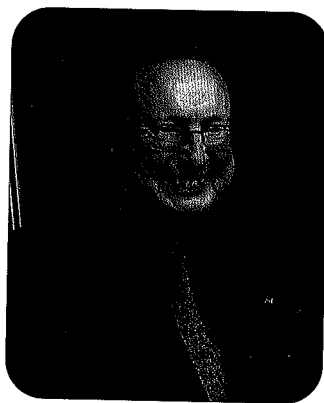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칭찬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호를 받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기가 쉽다.

위에 이야기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이다. 그는 설교한 후에 당시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돌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신 것은 아닐까?

지도자는 주로 남 앞에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관심 있게 살피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사역을 맡겨 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기준에 서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그의 고백은 우리 모든 사역자의 귀감이 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그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전 4:1-5)

풀러 신학교의 지도자학 교수인 클린톤 교수는 "지도자들은 모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지도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당신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인가 주님인가?

Dr. John E. McKenna 교수

Dr. John E. McKenna 교수

"The Kosher Trinity

Around 700 AD, Abd al-Malik built on top of the Temple Mount in the City of Jerusalem the Dome of the Rock. Islam's sacred Mosque at Mecca now had a sister on a site where King Solomon had once built Israel's Temple in honor of his father, King David and his Lord. Inscribed upon the inner walls of the Dome one can read the following inscriptions: "Praise be to God, who begets now son and has not partner...*He is God, One Eternal. He does not beget nor is begotten, and He has no peer...The Unity of God and the Prophecy of Mohammad are true...the sonship of Jesus and the Trinity are false!"* [1]

Well documented is the assertion of Judaism that the Jews have always heard the Doctrine of the Trinity of God as dualistic polytheism. They remain unable rightly to read the *Shema of the People of God with any resonance with Christianity. Christians proclaim, not the One Lord God of the Shema, but their strange three gods along with gods of the pagan religions. "From medieval times to the present day, Jews of all persuasions have insisted on the correctness of this view---Judaism rejects any form of dualistic or Trinitarian doctrine, no matter how such beliefs are reconciled with the concept of monotheis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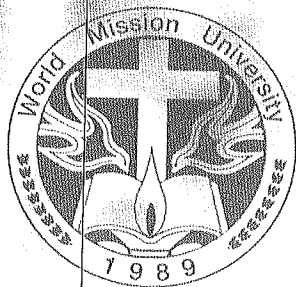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of God, even among Christians, has faced great debates across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the world and has often and steadily been despised. The Newtonians in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could battle fervently against Athanasius and the Nicene Confession of the Trinity confessed the fathers of the early Church as the Father, Son, and Spirit as the One True God.[3] Perceived in the light of the much-vaunted 'Natural Reason' of humanity under One God, many could reason against its Dogma. Many in the movement that found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uld consider its confession on the part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Rome sheer heresy. Thomas Jefferson may serve as illustration. In his writings may be read a legion of references regarding his feelings about the Trinity.[4] Jesus Christ was a good and reasonable man, far beyond most, but his Revelation belonged to a New World that

---

[1] Dore Gold, *The Fight for Jerusalem* (Regnery, 2007), p. 102. The denial of the Nicene Creed of the Christian Theology of the early Councils of the Church is evident.

[2] D. Cohn-Sherbok, *A Dictionary of Judaism & Christianity* (Trinity Press, 1991), p. 174. References to Jesus and the Trinity are legion in Judaism.

[3] C. Kaiser, *Creation and the History of Science* (W.B. Eerdmans, 1991). The author writes,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ppeared to him (Newton) an illogical mystery, without biblical foundation and tantamount to polytheism." (p. 185) Kaiser's work provides an excellent survey of the problems between Christian Theology and the Science of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4] See M.D. Peterson, ed., *Thomas Jefferson* (Library of America, 1984), pp. 903-4, 1077, 1120-26, 1431, 1436-39, 1300-04, 1372-73, and 1458-60. The autho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s a Unitarian, hated as corruption of Human Reason the Dogma of the Trinity.

would be established, free from *'the domineering hierarchy and superstitious adhesion to ancient habit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triumph over the *'crazy imaginations'* of *'impious dogmatists'*.[6] The great founding fath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uld write to John Adams, "*I can never join Calvin in addressing his god...his religion was Daemonism...he worshipped a false god...*"[7] This was a man for design and the consummate skill of the Creator, of whose Being "*we know nothing*".[8]

Contrast these arguments with contemporary efforts to proclaim the One True God as the Trinity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nd also in this way (defining the essence of God with derivations from formal logic), *there was created, involuntarily, the basis on which an anti-Christian philosophy (and at the same time and later a heretical theology) could only too easily attack the dogma of the Trinity, and with it all the decisive articles of faith and its knowledge of the Word of God.*"[9] Karl Barth perhaps wrote, beyond anything St. Augustine, St. Aquinas, or John Calvin ever produced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his magisterial dogmatic argument for the Trinity of God and the Incarnation of His Only-Begotten Son as the Head of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in the world. In doing so he gave the Bible back to intellectual Europe and provided a basis for the new interest in our times in the Trinity. Perhaps Barth's best interpreter, Thomas F. Torrance, followed Barth in this effort and has taken the great Swiss theologian in a direction that would produce a real grasp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nity of the One True God as the Creator of the world with our modern science in the world. He writes: "*I myself like to think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s the ultimate ground of theological knowledge of God, the basic grammar of theology, for it is there that we find our knowledge of God reposing upon the final Reality of God himself, grounded in the ultimate relations intrinsic to God's own Being, which govern and control all true knowledge of him from beginning to end.*"[10] Torrance's books entitled "The Trinitarian Faith"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One Being, Three Persons", seek to bring to bear the Dogma of the Blessed Trinity, as articulat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upon our post-modern world, where fashions of popular movements readily prevail without regard for the old Dogma of the Church.

One may learn to understand the biblical basis of Barth's and Torrance's theologies simply b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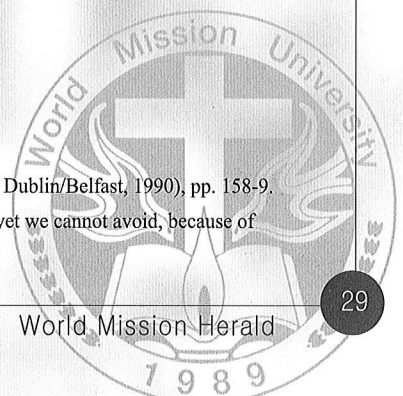
[5] P.M. Zall, *Jefferson on Jeffers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2), p. 138.

[6] M.D. Peterson, op. cit., pp. 1458-60.

[7] Ibid, p. 1466.

[8] Ibid, p. 1467

[9] K. Barth, *Church Dogmatics,* II.1, p. 261.

[10] T.F. Torrance, *The Ground and Grammar of Theology* (Christian Journals LTD, Dublin/Belfast, 1990), pp. 158-9. Torrance tries to show that the Trinity of God is more to be adored than explained, yet we cannot avoid, because of mistaken views of the Creator, the arguments that developed the Dogma.

surveying their references to Exodus 3:14 in their work[11] To grasp the continuity between the Testaments and to understand their witness, in spite of the evident discontinuities, is to stand under the actuality of the One Revelation of the One Lord God of Israel and the Church in the world. It is to hear the Word of God as we ought to hear Him in our times. Israel's Exodus tradition and the Incarnation form a trajectory in time and space where particular events possess are given universal meaning in the Being of the Redeemer-Creator of all the Creation. The I-AM the Lord God is in dialogue with Moses and Israel is the same I-AM who is in dialogue as Jesus Christ with His Church in the world. Thus, the I-AM of Church Dogma is not intended as a different witness from the One of the Biblical Revelation, whose gift of union and communion with the human race in Himself, as the fulfillment of His personal purposes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is to be understood with Biblical Faith. The I-AM the Lord God in the Burning Bush is the I-AM He is as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His Body, and the Creator of the 'All', invisible and visible, the Creation is. He is thus revealed and named and defined and given as the Father, Son, and Spirit of the Great I-AM.[12]

When I became a Christian in 1972, in the so-called 'Jesus Movement' of Southern California, our communities were a long way from reading theologians like Karl Barth and Tom Torrance. Out of each of our private pits, we sought enthusiastically to know Jesus and His Salvation, the Holy Spirit who had down into them and delivered us from the horrors of them, grateful for the new life He had given us. You can hear songs of our praise being sung around the world today in Ireland, in Russia, in South America and so forth. Yet I remember that we possessed little concern for and less teaching about the Father in our congregations. We waved only slightly up our hands to the Blessed Trinity. The triune Being of God was at best for us but an enigma, a mystery the statement of which was without practical value really for our lives. The Holy Trinity of the Church's Dogma was the source of the plethora of schisms with which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the world was plagued. We could best proceed to learn to follow Jesus with our lives happily in the hands of His Love. Love was what we needed, not doctrines. It was a message that 'beats' and 'hippies' and others meant for the solitary life, after lifetimes spent, like fish in water, in the

---

[11] For Barth, see *Church Dogmatics*, I.1, 317-18, 322; I.2, 53; II.1, 302, 492; II.2, 188 218, 343; IV. 2, 768-770; IV.3.2, 577ff. For Torrance see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One Being Three Persons*, pp. 22, 45-48, 67, 103-4, 119-127, 132, 156, 160, 235-6. With both theologians, there exists a real and intelligible continuity between the I-AM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I-AM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I-AM of Christian doctrines.

[12] It is normal to find Him explicated as Prophet, Priest, and King of His People and His Creation, but I have argued that it is better to grasp His Person as the King, Prophet, Priest, and Sage of the Gospel proclaimed by Israel among the nations and the Church in the world. To understand the kind of relations intrinsic to and inherent in the Lord Jesus with His Father and the Holy Spirit for His People in the world requires the Wisdom that is sent from above (The Book of James).

suffocating pits of our makings, could gladly hear. Bibles in hand, breathing the fresh air of the Spirit of the Grace of God, we rejoiced with songs now heard around the world. But as for the fathers of the early Church, as for the Dogma of the Trinity, few of us had little care. Such thoughts belonged 'elsewhere' on our maps. We called seminaries 'cemeteries' and were happily on our ways.[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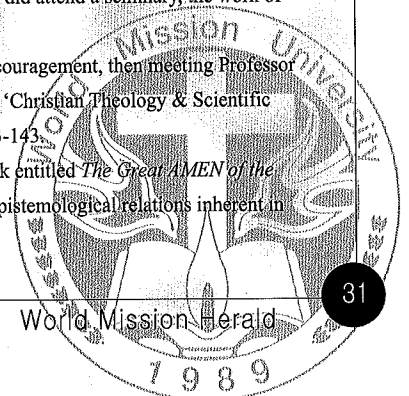
But from the Jesus Movement, my wife and I were moved to atten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en I learned to read people like Barth and Torrance.[14] Since then, we have steadily sought to attend to their thought and to relate the biblical world to the world space and time and motion and matter that is the real universe of God's Creation, the Great I-AM self-revealed and named and defined and given to us as its Creator through the witnes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Revelation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with us and for us as the One Word of the One God to be known as the Father, Son, and Spirit of the His Eternal Life.[15] The I-AM of the Burning Bush and the Exodus with Moses and Israel, the I-AM of the Incarnation and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I-AM of the early Church with her Dogma of the Blessed and Holy Trinity is the One I-AM who is the I-AM He is as the Lord God, Redeemer-Creator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 ultimate experience in the world, far from being non-rational, absurd, or a great solitary experience of freedom in the silence of the world, belongs to the Word He is of God. There is this I-AM the Lord God i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the world, in spite of all appearances to the contrary, to be believed and understood.

The theological thrust of the confession of Moses and Israel belongs to an arrow of time that is aimed at the purpose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with His People. The dialogue He established on holy ground with the great leader and prophet of the history of the People of God will steadily argue with Israel, across centuries of opposition, rejection, and rebellion, that the relationship of His Being as the One He is with His People among the nations possesses the context in space and time that His People might become 'My People', the creative result of His steady intent and purpose to make the relationship a vehicle of His Glory in His Creation. The biblical covenanted relationship of the Lord God with His People possesses a nature in space and

---

13 The most visible theologian for me at that time was Francis Schaeffer, who did write about the Trinity of God. I read his books as best I could, but because of them I would not read, when I finally did attend a seminary, the work of Karl Barth (see Quodlibet Journal, Vol. 2, Num. 3, Summer, 2000).

14 Thanks to James Daane's book entitled *The Freedom of God* and his private encouragement, then meeting Professor Torrance in 1982 at Fuller's annual Peyton Lectures, I published my first article on 'Christian Theology & Scientific Culture',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Volume XIV. NO. 2, October, 1986, pp. 133-143.

15 My efforts to communicate this experience may be read in my forthcoming book entitled *The Great AMEN of the Great I-AM* (Wipf & Stock, 2008), in which I would recover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relations inherent in and intrinsic to the Revelation of the Word of God.

time where and when its purpose in the world shall be realized. *The Great AMEN of the Great I-AM* attempts to show that, with the Divine Freedom and the Holy Love we read in the Bible,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with His People wills with His Wisdom in such a way that He shall not miss His mark.

He hits His mark first of all with the Incarnation of His Word, when the nature of created reality is taken up into the covenanted relationship so that His Uncreated Reality is made present and known in a new way, new for God, new for Man, and new for His Creation. The Great I-AM who is who He truly is with Israel is who He is as His Word Incarnate in space and time as this One who in His Freedom is the One He is. If we would understand the thrust of Moses' confession, we need to understand both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herent in the trajectory that shall not miss its mark, which shall realize and fulfill the reason for the mark of the covenanted relationship even from the beginning. It is within the dynamical nature of this biblical covenanted relationship (BCR) that we may grasp the depths of the I-AM the Lord God is in His relentless struggle to become known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as the One He is. Christ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His Spirit sent in His Name to conceive the Church as the People of God under the New Covenant, the final renewal of the BCR in the space and time of the Creation, the Great I-AM has given His People an experience of His Being and Nature that His People must learn to honor and love with all of their hearts and strength and much-ness. In the BCR with Him, they must be 'My People'.[16] In this light, we may grasp the depths of the reality of the dynamical nature of the BCR, the logic of its being, its way of knowing, i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this Revelation of God with His Creation, the thrust of which is to understood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f the Eternity of God. The Righteousness of this Great I-AM is to be found then with the Dogma of the Church, and not without her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 in the world. For this reason, I tried to show that the Blessed, Holy Trinity of God's Being and Nature might also be called 'The Kosher Trinity'.

The Trinity of God is not a doctrine that may be reduced upwards into abstract principles or some static metaphysical grasp of His Personal Being, into some timeless immaterial substance or content. Nor may it be reduced downwards into an existential subjectivity or autonomous experience of Him, divorced from the actual relationship the Great I-AM has given us of Himself as the Lord God He actually is, is in order that we may know Him for who He truly is and come

[16] For article on the background of this nature of the BCR see *Quodlibet Online Journal*, Volume 1, Number 8, December, 1999 and Volume 3, Number 2, Spring, 2001 for my attempt to provide the biblical basis of the argument. The Great I-AM of the Exodus is the One whose command to love we read in Deuteronomy 6:4, the One the People of God are to hear and to love as the One He is. His commitment to with His love to His People as "My People" can be read in the prophecy of Hosea (Hosea 1:9;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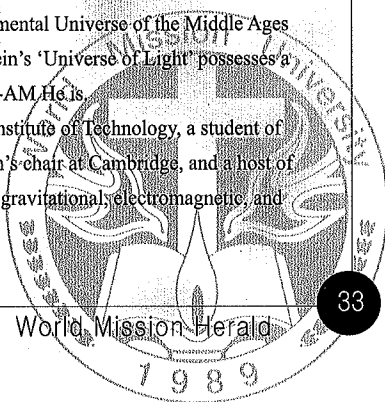
to understand His atoning love as our Redeemer-Creator. This is His Relationship for us, a personally created and creative reality very much bound up with who He is as the I-AM He is of both time and Eternity. As such, 'The Kosher Trinity' may not be divorced from our experience of the space and matter and motion and matter that is the universe whose nature we learn with our scientific tradition and culture.[17]

It is for this reason that Professor Torrance sought to champion in our time the contingency of the Creation of God as the real universe in which we have our beings and it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eing of God as the Redeemer-Creator the I-AM is as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is way, we may overcome the divorces we have experienced in the West's efforts to understand the marriage between Christian Theology and our scientific culture.[18] Our modern search for cosmologies that would grasp the unity inherent with the fields of our experience in the world is bound up with, whether by belief or unbelief, with the I-AM He is as the Trinity He is.[19] We need to learn to be able to relate, not merely the One God to the Creation, but the One God as the Blessed, Holy, and I might add here the Kosher Trinity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carnate with His Word in a world that is His Creation. Nothing but good can come in our times to seek to integrate with the new dimensions of being and experience in our post-modern world the New Man of the Kingdom of God. If the imaginations of our scientists and the enterprises of our scientific culture in the world have been captivated by a necessity to seek for a new window, a new mathesis, a new science in our time, would we not benefit from seeking to relate the Trinity of the I-AM the Lord God afresh with the realities we have discovered about His Creation? Thus, Professor Torrance has championed a concern for this relationship in many of his later essays and books. I would argue that the Grace of God with us does not allow us to ignore this relationship. The Jesus Movement cannot be divorced from the Father confessed by the Holy Spirit at Nicea. The Father cannot be divorced the Spirit of His Son sent from His Eternal Life for us, on our behalf, in our place in His Creation, in a universe whose heavens and earth are meant to be a home for mankind made in His Image, if we are truly to b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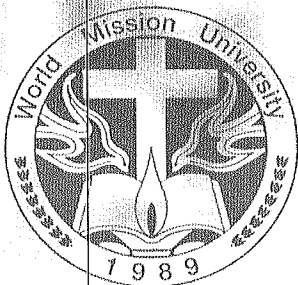
[17] We recall Einstein's more than famous logion: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When the great legend of our scientific culture was hired as a professor in a German university, to prove his was no atheist he wrote on his job application that his religion was '*the religion of Moses*'.

[18] It can be shown that the developments from the Ptolemaic Cosmos of the Sacramental Universe of the Middle Ages to the Newtonian 'System of the World' as the Mechanical Universe and into Einstein's 'Universe of Light' possesses a movement that may not be divorced from who the Creator actually is as the Great I-AM He is.

[19] I have in mind such efforts as we read in the work of Kip Thorne at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a student of John Archibald Wheeler at Princeton, Professor Stephan Hawking sitting in Newton's chair at Cambridge, and a host of people seeking UNIFICATION of our understanding of the fields, thermodynamic, gravitational, electromagnetic, and nuclear so far discovered in the world.

the One Holy Apostolic Catholic Church of His Triune Being and Nature with His Creation, according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of the Holy Scriptures of the Revelation in time and space and the motion and matter that is the universe where we have our beings. There belongs to the Reason of this Revelation real continuity that we must learn to grasp, if we will indeed understand the particular discontinuities we must face when we read the History of Israel and the Church as the People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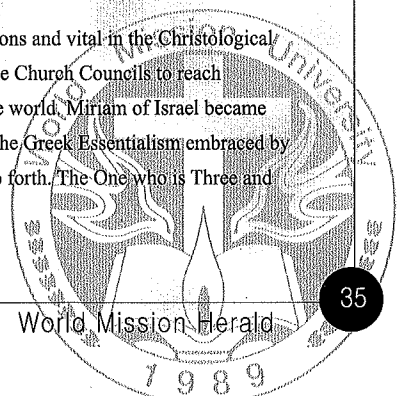
In this light, I would to suggest that we must consider afresh the challenge implicit in the role of Miriam of Israel and the House of David in the Revelation through her Son, who as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established out of the Old Covenant and its Prophecy in the world the New Covenant for the times of the New Creation. In this way, He has made Himself present and known for us in space/time, the form and content, shape and substance, of Israel's Messiah in the world, become that Personal Being, Word, and Nature of the I-AM as the Man Jesus Christ. For too long, the Church has missed His mark here in this light, in this way. The relational wholeness of Miriam of Israel and the House of David, or the Virgin Mary, with Moses and the Prophets of Israel must not be missed.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her Son, is the Son of David as the Son of God according to the nature of His Virgin Birth. Without a real grasp of her life as a Mother of Israel from the House of David, we will not seek to understand this relational wholeness. Yet it is a wholeness established by the Lord God Himself in His Old and New Old and New Covenants of Israel's with Israel and the Church. The prophetic movement and the messianic hope inherent in this movement among the nations must not be missed. As the Mother of Israel's hope, Miriam gives birth to the Deliverer of the People of God. With her son comes the deliverance of the People of God from their rejection of the I-AM He is and their rebellion against the Lord their God in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them. Her son,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God born by the Spirit of God with Mary, the Virgin, with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her baby as the New Covenant prophesied in Israel, as the Messiah fulfills God's intention and purpose for Israel among the nations in His Creation. Unless we can understand who she is as this Mother in the House of David, we will not seek to understand who He truly is. We will not seek to grasp the only real connection between the times of the Old Covenant and the times of the New Covenant. We will to miss the mark He is from God for us, God's atoning love sent on our behalf, the sacrifice and substitute for our sin and evil and death in the world.

People who seek to understand the rational unity of the Testaments without facing the real significance of her life must face her son merely as an enigma of eternity and time in our world, a rational unity that easily escapes our attention from time to times.[20] Miriam of Israel must

[20] See T.F. Torrance's *Divine and Contingent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especially his argument about contingence and disorder, the freedom of God to penetrate into the depths of our sin and evil and the death we experience under His curse, and our deliverance and salvation from them in Himself.

mean for us that there exists no merely logical causal necessity between the Testaments. There exists only the freedom of the Lord God to act with Himself creatively in order to renew His People in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Himself as the Great I-AM He truly is for us. Moses at the burning bush and Miriam at the birth of her son both belong to that holy ground the Lord God has created for Himself with us, so that He might be present and made known among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 Church is to understand that the rationality of this divine and human freedom as this Word of God, this Light of Life, has come as this man into His Creation for the sake of renewing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Israel as the Light He is for the nations. It is because of this absolutely unique entry that we may learn to speak of God's New Creation, and of Miriam as the 'Theotokos'.[21] She must be confessed along with the Son of the Father and the Father of the Son according to the Spirit of God sent in the Name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salvation of all mankind within His Creation. Thus, it is right and good to Name Him Father, Son, and Spirit, who is the Great I-AM and Lord God of all space and time revealed now with the birth of Miriam's child in Israel in Bethlehem, the One raised in Nazareth for our sakes. The Trinity of the Great I-AM is rightly called the Blessed Trinity and the Holy Trinity by the Dogma of the Church, Dogma of the Great I-AM with Moses and Abraham, with David, and the Prophets of Israel, the I-AM of the Incarnation in our time. But it is thus also right to name Him the Kosher Trinity. This is the One who is who He is as the Lord our God made present and known with us as the Person of the Son of the Virgin Mary in God's Israel, in God's Creation.

I am grateful to be able to participate the one Church of this apostolic, holy, and catholic confession with its continuity posited by the Lord God in His Freedom with Himself to act on behalf of sinners in this world. Thus,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Israel and the Church, is fulfilled in the space and time and matter and motion we experience in a world that is His Creation. Our need to grasp in all of its depths the reality of this biblical foundation and formation of the People of God and the Dogma of the Trinity as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the times we read in the Bible in the Light and Lift of this One, King, Prophet, Priest, and Sage of the world, is evident for all to hear and see. If we are deaf to Him, it is a choice we have made. If we are blind to Him, it is a choice we have made. But even deaf and blind to Him, we exist under His Grace and Truth in divine and human freedom. Without Him and with Him we are free

---

[21] The confession of the 'Theotokos' was important in the early creedal formations and vital in the Christological debates that raged East and West in the 4th, 5th, and 6th centuries of the efforts of the Church Councils to reach agreement on a confession of the wholeness of the Revelation and its Reason in the world. Miriam of Israel became known as the Virgin Mary and then became much maligned as the 'Theotokos' of the Greek Essentialism embraced by the Church, East and West in their respective ways, on into the Middle Ages and so forth. The One who is Three and the Three who is One cannot be explained without her.

to choose to follow Him in His Name or not. Yet our choices do not determine who He truly with us. I believe that we may find in the Dogma of the Trinity of the Lord God, the Great I-AM He is as made known once and for all through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Miriam and God, the kind of renewal and revival our times need so desperately. With this doctrine, we may discover the real help, both ontologically and epistemologically; we need in our struggles to understand our God, Mankind, and a world we must come to know as His Creation. The Kosher Trinity says that the I-AM the Lord God is as revealed through Jesus the Christ is none other that the I-AM the Lord God is with the confessions of Moses and David in the history of Israel. The Reason for the Revelation is the wholeness of the One He is as our Father and the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Spirit of God. There is no other One.

Rev. John E. McKenna
Vice President of Collegiate Relations
World Mission University
Los Angeles, CA 90020
Spring, 2008

SON Ministry 김정한 목사

미주한인교회 차세대 선교동원 및 자원화 전략

"서론

1806년 메사추세스에 있는 윌리암대학 단풍나무 아래 건초더미에서 5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자고 기도하기 시작한 Haystack 기도모임 있은지 200년이 지나고 한인들이 미주에 이민을 시작한 1903년의 이후 105년이 되는 때이다. 윌리엄 케리,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유럽에서 시작된 현대선교는 미국의 학생자원운동으로 이어져 오늘날 미국이 세계선교에 아직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비서구 출신 선교사가 서구 출신 선교사의 수를 능가하면서 선교의 주체와 세대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911 세계무역센타 테러 이후에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이스라엘과 레바논등 중동지역의 정세변화와 전쟁은 비서구권 선교에 대한 서구주도의 선교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주에 있는 3800여개의 한인교회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차세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다음세대의 세계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수 있는 선교자원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다. 한인교회의 영어권 차세대들은 비서구 선교와 서구선교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과 선교사역을 계승 할 수 있는 특별한 선교자원들이다. 그러나 한인교회는 1세 목회자들의 고령화와 1세와 2세들간의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단절등 풀어야 할 내부적인 선교과제로 안고 있다. 앞으로 20년이후의 한인교회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현재 교회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어권의 차세대들은 얼마나 세계선교와 연결이 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와 서구선교사들이 갈수 없는 곳에 갈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차세대 선교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젊은이들이 불씨가 된 미국의 선교운동-Haystack 기도모임

1806년 하나님은 미국을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사용하셨다. 당시의 영적지도자들 또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으키시지 않고 평범한 5명의 대학생의 기도를 통하여 일으키셨다. 사무엘 주니어 밀스등 5명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주 정기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고 대화중 한 사람이 아시아가 복음이 필요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시아의 사람들이 문명화 되기전에는 위험하니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기도중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오자 건초더미 아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은혜로 기도에 불이 붙어 위대한 미국의 선교운동의 시작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Haystack 기도모임후 1808년도에 형제회 (Society of Brotheren)를 만들었고 밀스가 교회에 건의하여 1810년에 미국최초의 선교단체인 ABCFM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을 인도 칼카타에 파송하게 된다.

당시 Haystack 기도그룹에 리더였던 사무엘 제이 밀스는 18세때에 대학에 입학하였고 1817년도에 아프리카 미국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위하여 조사를 갔다가 병을 얻어 미국으로 귀국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며 그때 나이가 36세였다. 기도모임을 하던 5명은 당시에는 차세대에 속하는 20세가 안된 연령의 사람들이였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선교의 운동의 불씨로 당시의 유능한 목회자들을 사용하시기 보다는 아직 어린 차세대를 움직이는 선교전략을 사용하셨다.

미국의 차세대를 세계선교 자원으로 연결시킨 학생자원운동 (SVM)

Haystack 기도에 영향을 받은 열매로 80년후에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학생선교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학생자원자운동이였다. 헐몬산 집회 (1886)에서 프린스턴 서약을 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표어는 "우리 세대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것으로 마지막 대회는 1936년에 열렸다. 이 운동을 통해 100,000명의 차세대선교 헌신자들이 나왔고 이들 중 2만명은 실제로 선교지로 나갔고 나머지 8만명은 고국에 남아서 선교후원과 함께 미국의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적 토양을 만들어 갔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1880년대-189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오늘날의 1/37정도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연장이 현재 어바나선교대회라고 할수 있다. 학생자원운동은 Haystack 기도모임이 일어난 다음 2세대를 거친 후에 다시 선교의 불씨가 학생들에 전달되어졌던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학생들처럼 어린 청년들을 통하여 지난 200년 미국을 통한 세계선교를 시작을 하셨을까? 당시에도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미국의 해외선교운동의 시작을 대학생들이 청년들을 통하여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 12제자로 선교를 시작하셨고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암 케리로 시작되는 선교는 아직 차세대가 본격적으로 동원되어진 선교가 아니였다. 그러나 Haystack 기도모임후에 이루어진 미국주도의 세계선교는 학생들, 즉 젊은 차세대가 선교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선교의 특징을 세가지로 본다며 첫째, 차세대의 참여와 역할, 둘째, 차세대와의 연결, 셋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차세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서구권 중심 선교 시대에서의 한인교회 선교사명과 차세대 선교자원

지난 200년동안 서구교회들이 선교를 주도적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아시아에 기독교 인구는 아직도 전체의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구전체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은 아시아권 선교를 하기에 선교적으로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적 장점과 가능성을 말한다면 곧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으로 영어권 차세대들을 말 할수 있다. 2세들은 다중문화권에서 성장한 배경과 영어 구사의 능력은 현재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의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언어와 문화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의 차세대들은 한국인 또는 아시안으로서 서구에서 성장한 장점을 가진것을 감안 할 때는 특별한 선교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권 차세대들에 대한 선교의 경험과 도전 그리고

훈련은 앞으로 세계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일꾼으로 세울실 것이다. 특히 서구 선교사가 들어 갈수 없는 지역에 동양적인 외모로 인하여 신체적인 위협을 줄이며 선교지를 들어 갈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교접근 제한지역의 확대와 한인 차세대 선교 효율성과 특수성

현재 세계는 선교제한 접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촌이 정보통신, 교통의 발달, 영어의 세계화로 단일화 되는 과정이 있는 동시에 민족주의의 팽창과 종교와 정치의 이유로 선교사 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1974년도에는 약 33개 나라가 1989년도에는 119개 나라가 2000년도에는 139개 나라가 선교접근제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현재는 세계의 80% 지역과 2500여 미전도종족이 사는 지역들이 선교사 비자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고 2020년도에는 170개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교회의 영어권 차세대는 마지막 선교시대에 있어서 선교제한접근지역을 뚫고 들어 갈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가진 절대로 필요한 선교적인 자원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매년 1100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지역 한인교회의 영어권 차세대는 선교사로서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로 파송되는 숫자는 아직도 극히 미미한 숫자이다. 앞으로 한인교회는 얼마나 차세대를 선교사로 일으켜 보낼수 있는가? 한인교회의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선교과제중에 하나이다. 한국선교사 중에 34%가 미전도종족 지역에 들어가 선교를 하고 있다. 국제적인 선교사 평균으로는 10% 정도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 한인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선교로 인하여 미전도 종족 지역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을 이어갈 차세대 선교사들을 미주에서 얼마나 보낼수 있는가? 어떠한 준비를 시켜야 앞으로 20년을 준비 할수 있는가? 30년전에 선교로 출발했던 현재의 선교사들은 당시에는 차세대였다. 지금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세대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인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선교숙제이다.

미국사회에서의 차세대 단어에 대한 연령별 구분과 정의

미국에서 말하는 세대별의 구분은 태어난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침묵의 세대 (Silent Generation 1925-1942)는 이미 고령화된 세대로 융통성이 있고 다양성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세대이다. 베이비 부머 (Baby Boomers 1943-1960)는 영적각성과 이상주의적인 세대로 경제부흥기에 성장한 세대이다. 제네레이션 엑스 (Generation X 1961-1981)는 회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이고 동시에 질문이 많은 세대이다. 밀레니얼스 (Millennials 1982-2000?) 세대는 1990 년도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로 낙천주의적이고 성공지향주의적이며 동시에 보수성이 강한 세대이다.

본 발제에서 차세대라고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는 현재 한인교회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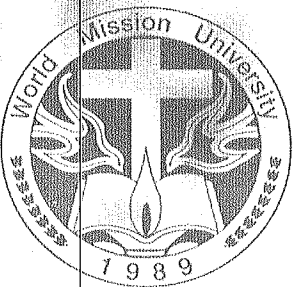
청소년들 즉, 밀레니얼스 세대로 2000 이후에 성인이 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미주한인교회의 차세대 선교는 이제 밀레니얼스 세대, 즉 현재의 중,고등부,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이로 본다면 현재 14세-25세 사이로 볼수 있다.

차세대의 위기와 영적전쟁들

차세대 (밀레니얼스)는 선교적인 장점이 많은 반면에 자신들을 선교자원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많은 도전과 영적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 밀레니얼스 차세대들은 문화적인,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다음 세가지 영적전쟁이 차세대를 무너트리게 하는 전쟁들이다. 첫째가 문화전쟁 (Culture Wars)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구조와 문화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현대 문화전쟁중에는 동성애가 현재 문화의 중요한 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거부감 없이 점차로 받아들여지며 익숙하여지고 있다. 둘째로는 인터넷 전쟁 (Internet Wars)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한 연결로 인하여 점차로 대중과의 연결들이 약해지며 잘못된 지식과 정보, 성적인 타락의 원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셋째로 (마약과의 전쟁 (Drug Wars)으로 사회와 학교안에서 보편화 되어있는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밀레니얼스 차세대들을 향한 사단의 영적도전에 대하여 한인교회들은 많은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차세대는 선교자원으로서 특별한 세대이며 동시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미주한인 교회성장의 기초가 된 한인사회의 성장

2006년 7월 11일에 미국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내의 아시안 인구 (1310만)중에 한인들의 인구비율은 10% 정도라고 발표를 하였다. 공식적인 미국내 전체 한인 인구는 총 133만 5천75명이며 이중의 76%인 102만 3천956명이 한국서 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미국내 한인의 24% (31만1119명)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인사회에서 2세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율 24%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것 아니고 각 교회마다 1세 성도수에 비교해 볼때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

영어구사능력을 보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은 106만0631명으로 전체 한인의 7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가운데 42%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 (very well)'고 답한 반면 나머지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가주내 한인 인구는 2006년 현재 43만913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8933명이 늘었다고 한다. 한인인구의 증가는 한인교회들에게는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통계는 미국 연방센서스국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2007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미동포 인구는 201만6천911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다. 한인들의 경제 규모도 놀랄 만큼 성장했다. 한인들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6만2천달러에 달했고, 13개에 이르는 한인 은행들의 총 자산규모도 100억달러가 넘을 정도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동포 1세는 전체 한인의 49.6%, 1.5세와 2세는 50.4%를 차지한다. 한인사회에는 이제 젊은층의 인구가 1세의 인구를 추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주한인교회의 현황과 1세 목회자의 부족한 선교관심

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 선교를 다루는데 있어 현재 한인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관점과 의식을 분석하여 보면 차세대 선교에 대한 현황도 알수 있다. 2005년 12월에 미주크리스찬 투데이의 통계로는 현재 한인교회의 수는 3,870개로 조사되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2004년 신년특집 (1월 7일)으로 이민교회 목회자들 (28개주의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민교회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성장 (34.7%), 영력을 포함한 자신의 재교육 (22.2%), 건강과 자녀교육 (12.5%), 경제생활 (8.3%), 예배당 건축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것은 이민교회 목회자의 관심중에 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리스트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적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는 "2세 목회자 양성 (31.7%)로 나타났다. 이민교회의 선교방향으로는 전문인 선교사 양성 (28.0%)라고 하였다. 이민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요인으로는 이민사회의 중추적 역할 감당 (21.1%), 이민생활의 외로움 (19.9%), 기도에 열심 (14.4%), 목회자의 리더쉽 (13.9%), 모이기에 힘씀 (9.9%), 교회개척에 열심 (9.7%) 이였고 적극적인 세계선교 (5.2%)는 하위에 두었다. 따라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주된 관심은 교회성장에 관심이 있고 가장 시급한 필요는 차세대 영어권 사역자 양성이라고 했지만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은 거의 마지막 순위로 나타났다.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선교 무관심이 곧 차세대 선교동원과 선교계승에 단절로 나타나게 될것으로 우려가 된다.

차세대 선교동원과 한인교회를 향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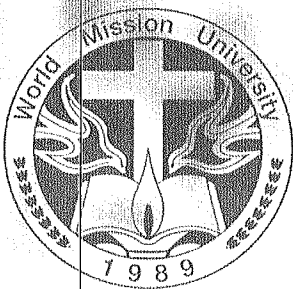
1. 차세대 선교와 한인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선교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서 의미와 역할이 어떠한 역할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민초기의 한인교회의 역할은 이민사회의 구심점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중심적이였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인 단일문화, 단일민족 중심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동질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그 특성을 유지, 계승하는 장소가 곧 교회로서 이민사회 안에서의 교회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연장과 동시에 '살아가는 한가지 방법' 으로 허 원호 박사 (Korean Immigrant in America. 1984. p136)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1995. p380)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은 선교적 역할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정의하였다. 그의 정의에 근거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지 교회가 되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주와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이 이제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세계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민교회 목회는 선교적인 안목과 인식이 없이는 이민교회의 특성를 제대로 살릴 수 없으며 동시에 선교의 자원이 차세대들을 위한 목회철학도 새로워져야 한다.

2. 한인교회의 목회는 차세대 선교동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인교회들의 목회방향이 교회성장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인교회안의 차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며 선교와 연결시키지 못하는것이 문제이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과 목표가 선교가 아닌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선교와 차세대들에 대한 생각은 중요하지 않는 주제 일 것이다. 교회 성장학의 영향은 본국뿐만 아니라 이곳 미주한인 이민교회에도 교회성장의 뒤에 따라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가 일단 개척이 되면 전도하여 교인을 많이 모으고, 그 후에는 자체 성전을 가지며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100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한인교회들의 목회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Thom S. Rainer는 다음과 같이 교회성장에 대한 목적을 "교회의 사명은 큰 교회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The Book of Church Growth. p319)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목회자 자신이라면 선교적 측면에서의 교회성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교가 빠진 교회성장만이 있다며 그것은 분명 목적을 잃은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겠다. 16년전에 이미 김 상구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의 대형교회에 대한 앞날을 다음과 같이 예견했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성장, 대약진의 시기는 지나갔고 15년내지 20년 사이에 초대형교회는 없어지고 소형교회도 없어지고 중형교회들만 남을 것으로 본다." (The Christian Herald 1월 12일 96) 이 예견이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영어권 목회자의 부족이 자연이 많은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교회성장 자체가 이민교회들의 목표는 되지 않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민교회들이 지향하고 나갈 목회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정립이 수정되어야 한다. 대형화된 교회보다는 선교전문화된 한인교회가 되는것이 미래의 한인교회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1988년도에 개최된 시카고 세계한인선교대회에서 수백명의 선교헌신자들이 나왔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 미주 한인교회들에게서 파송된 선교사 수는 아직도 미미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이민교회가 수백명의 선교헌신자들을 관리하고 격려, 훈련하여 선교지로 파송하기에는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것을 말하며, 더 정확하게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에 목회의 중점을 두지 않고 있고 선교를 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플러 선교대학원의 Charles Van Engen 박사는 교회와 선교에 대해 "선교와 교회의 관계는 곧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선교사들로서 교회에 모인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자연히 선교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God's Missionary People. 1991. p27)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의 부재로 인한 이민교회들의 비선교적 활성화 즉 성전마련, 또는 선교하지 않는

제자훈련과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성경공부, 평신도 지도자 양성 등이 문제라고 지적 할 수 있다.

3. 차세대 목회는 관리차원이 아니라 선교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인교회들은 영어권 차세대에 대한 목회방향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차원" 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는 새로운 선교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분명 이민 1세대인 부모 세대와는 문화, 언어, 교육, 삶의 방법이 다른 새로운 선교대상들이다. 이들은 점차로 부모세대 위주의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다. 남가주 어바인시에서 다인종 젊은세대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New Song Church 의 David Gibbons는 "97%의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이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다" 라는 통계를 Iwa an Asian-American Resource Center의 조사를 인용하여 "Promise" (96년 1,2월호 p37)에 기고하였다. 2세들의 교회 이탈의 문제를 현재 이민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의사소통의 문제, 예배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미주 한인교회는 1세대와의 문화, 언어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교회 이탈과 특히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이미오고 말았다. 김상복 목사는 오래전에 "이민교회 안의 미국에서 교육받은 이중언어 지도자들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 고 지적하였다.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에 있어서 미주한인교회의 역할은 국제화된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미주지역의 차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로서의 잠재력은 타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력, 높은 교육배경, 국제 감각등에서 탁월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영어목회는 교회건축, 양적 성장보다는 차세대 선교교육, 동원, 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인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어권 차세대들을 위한 목회의 형태로 1.5세 또는 2세들만 모이는 1세교회로부터 독립된 교회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 영어 교회의 특징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젊은 목회자들이 1세교회의 형식을 탈피하고 자신들의 상황 (context)에 맞는 목회를 시도하는 것에 있다. 이 상현 목사는 다섯가지 형태로서 1세교회와의 연결로 영어목회를 구분한다. 첫째로 1세교회안의 영어목회-보통 "EM" 이라고한다, 둘째로 1세교회와 부분적으로 독립한 영어목회, 셋째로 미국 교회안의 부분적으로 독립한 2세 목회가 있고, 넷째로 완전히 독립한 영어 목회의 형태가 있고 다섯째로 교회외부의 단체 (Para-church)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Models of Ministry" Korean American Ministry. 1993. p234)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어권 차세대 교회운동과 영어목회의 문제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아직 분명한 선교관과 장기적인 선교정책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첫째 목적은 젊은세대를 교회안에 남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L.A. 근처의 완전히

독립된 극소수의 젊은이 교회들은 교회 목회자 사례비를 1세교회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1세교회의 재정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안에 있는 영어목회는 영어세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여기며 영어목회 담당교역자들은 아직 선교의 경험과 관심이 부족하여 차세대들을 선교 자원화 하는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제안
한인교회의 성장지향적인 패러다임은 이제 선교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제 부터는 한인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수용하며 선교를 위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교회 모델과 차세대 선교 패러다임

1) 차세대 목회는 선교지향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안디옥교회는 타문화와 타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교회로서 페러다임 전환의 성공을 통한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이다. 예루살렘교회가 생각지도 않는 부분의 선교를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했다. 한인교회들도 이와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를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한다. 영어목회가 차세대를 교회에 붙잡아두는 차원의 사역이 아니라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목회철학의 전환과 교회주일학교의 선교교육강화등 선교에 대한 방법 전환이다.

2) 차세대를 선교자원으로 보아야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차세대세들을 통하여 해외선교를 지속하는 선교적 전략의 변환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선교적 관점으로 차세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한인교회들은 이미 103년전에 화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자들이 와서 살아온 타문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들은 단순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선교에 중요한 역할과 부르심이 있는 선교적 자원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인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한인교회는 세계선교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 선교전략을 개발 할 수 있다. 이미 준비된 선교의 자원들 차세대들을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시키겠다는 목회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3) 차세대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와 협력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운동의 특징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개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다. 전문성있는 선교단체와의 협력보다는 단독 파송, 단독 선교프로젝트등을 외부와 연결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추세이다. "단절된 선교, 무협력 선교"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선교동원에 있어서는 선교단체간에, 교회간에 협력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김 영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신학의 새 패러다임은 자기 교파나 자기 교회의 아집과 독선에 머물지 않고 또 자기 교단의 신학을 절대시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단과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신학의 패라다임의 진단과 전망. p124)

차세대 선교를 위해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교파주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차세대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2-3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찬양과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교회등 교단이나 교파에 대한 중심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친구와의 연결 또는 분위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교회에 출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어권 교회나 사역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차세대 선교동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효과적인 차세대 선교건축 - 차세대를 선교자원으로 키우는 실제적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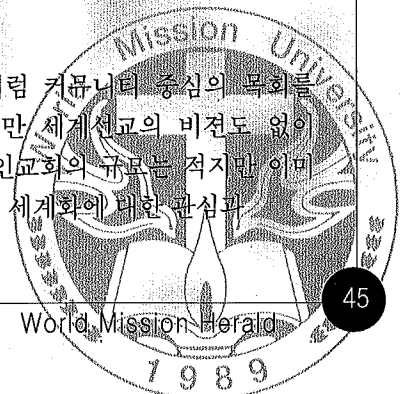
1). 성장 인프라 보다는 선교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

한인교회는 교회성장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몇교회들의 성장의 예를 따라 교회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인프라와 한인교회 전반의 인프라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다. 그러나 차세대를 선교에 동원하려면 교회의 구조를 선교동원을 위한 개교회의 선교행정체제와 교육, 지원체제, 단기선교의 활성화등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차세대들이 선교에 대하여 더욱 많이 듣고 경험하며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것, 교회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나 제자훈련등이 선교로 연결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2). 차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선교의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차세대에게 선교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선교의식이 있어야 한다. 차세대가 선교의식을 가지는것은 어릴때부터 교회학교 커리큘럼을 통하여 선교를 해야 하며 선교가 교회에 중요한 목적이라는것을 배우고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장 목적이 선교를 위한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3). 차세대 교육은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안에 살지만 오히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커뮤니티 중심의 목회를 하다보면 차세대들은 세계화 될수 있는 준비된 자원들이지만 세계선교의 비젼도 없이 교회학교의 시절을 보내며 성인이 되어가게 된다. 따라서 한인교회의 규모는 적지만 이미 세계화 될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있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세계화에 대한 관심고

노력이 필요하다.

4). 한인교회는 최소한 20년의 선교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1980년대에는 세계선교의 모토가 "2000년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자" (A Church for Every People by the Year 2000)라는 20년의 세계선교 전략을 서구선교에서 내세웠다. 미리 20년을 보며 선교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자라고 있는 차세대들이 세계선교를 위한 자원들이 되게 하려면 미리 앞을 내다보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 현장 선교사들과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해야 한다. 한인교회들이 단기선교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선교는 단기로 되어지는것 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통하여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낼수 있어야 한다. 단기선교팀을 보내고 선교사역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한인교회들이 차세대 선교를 동원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게 한다.

5). 한인교회들은 선교단체들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선교를 해야 한다.

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특징은 개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많이하고 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장을 하면서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의 기능까지도 할수 있는 인적,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면서 교회 자체에서 단독적인 해외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지의 선교프로젝트, 또는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선교훈련이나 선교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협의를 하는 일들을 보기가 어렵다. 차세대를 선교동원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개교회 중심의 선교활성화는 오히려 차세대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비효과적이라고 볼수 있다.

6). 한인교회들의 특성을 살리는 선교연구와 모임들의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민사회의 특성, 차세대의 특성, 한인교회의 특성, 선교단체의 특성등을 더욱 연구하여 차세대를 선교에 접목시키는데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비서구 선교는 아직은 서구선교의 역량과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한인교회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서구사회 속에 있는 장점들이 있고 200년 역사의 서구선교 자료와 경험등을 쉽게 배울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좋은 기회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103년 동안의 미주한인교회들에 대한 선교연구, 선교모임들이 미약하고 자체 이민교회 선교학, 선교연구 논문등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7). 차세대 출신 선교사들과 선교 리더쉽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어권 목회자도 부족하고 영어권 차세대들의 교회도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차세대 선교전문가 또는 차세대 출신의 선교지도자는 3500개 이민교회의 수에 비하며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주에서 나간 차세대 출신 선교사의 수가 얼마인가? 정확한 수가 얼마인가는 집계가 없고 아무도 정확히 말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인교회의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영어권 목회자 양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세대 출신의 선교지도자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8). 고령화 되고 있는 한인교회는 차세대에 대한 세대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인교회 담임목회자의 평균연령이 55세라는 통계가 있다. 10년후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목사의 세대교체를 피할수 없게 된다. 이미 몇몇의 대형교회들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인교회는 성장주의 목회에 맞는 당장에 경제능력이 있는 1세들을 목회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교회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선교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문화적으로 가능한 차세대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대상으로 선교전략을 수립하며 선교를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1세 중심적인 한인교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특징이며 절대적인것 보다는 상대적인 것이 중요한 21세기의 문화에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는 차세대를 위한 선교운동의 활성화가 한인교회의 선교사명을 계승해가는 중요한 일인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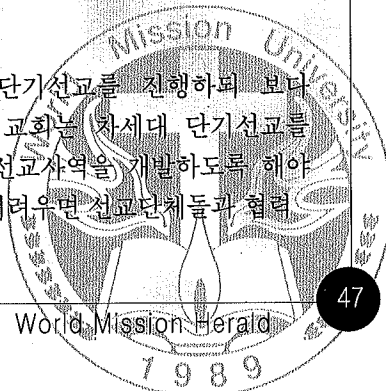
9) 차세대 선교 활성화를 위한 영성운동과 기도운동이 필요하다.

1806년 Haystack 기도모임은 현대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운동이였다. 모든 선교운동에서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 본격적인 선교운동으로 진행되었었다. 따라서 차세대 선교운동은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차세대들이 더욱 기도에 헌신될때 차세대 선교운동은 시작 될것이다. 기도없는 선교전략, 기도없는 선교부흥은 기대 할수 없다. 차세대는 생각이상으로 영성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인면에서 1세들과의 거리감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1세들의 영성을 인정하고 존경한다. 따라서 한인교회들은 차세대 선교를 위한 기도운동과 영성운동이 일어나 확산 되도록 해야 한다. 차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10) 차세대 선교건축 – 중소형 교회의 차세대를 더욱 단기선교에 참여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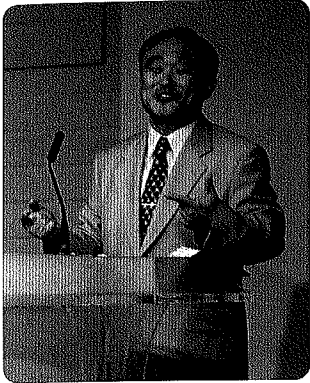
교회건축보다 선교건축, 사람건축의 사명이 한인교회에는 더 중요한 사명이다.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투자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교회건물이건 사람이건 투자가 필요하다. 희생이 요구된다. 경쟁심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선교에 있어서 단기선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전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기선교는 차세대들에게 선교를 피부로 경험하며 세계관의 변화를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교회안에서의 선교교육과 동시에 선교지를 방문하며 타문화권에서의 복음전도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것이 차세대들의 가슴을 열며 선교에 헌신하도록 도움을 준다.

교회건축보다 사람을 건축하게 하는것이 단기선교이다. 단기선교를 진행하되 보다 전문성있는 선교훈련과 사역을 준비시키는것도 중요하다. 교회는 차세대 단기선교를 위하여 선교후원을 늘리고 철저한 계획과 효과적인 훈련과 선교사역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교회 단독적으로 단기선교팀을 모집, 훈련, 파송이 어려우면 선교단체들과 협력

및 연대를 하여 차세대를 단기선교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차세대를 보내야 한다.

결 론

2000년대의 세계선교는 미주한인교회 차세대를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선교의 잠재적 자원인 차세대들에게 선교 도전과 함께 선교동원 전략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한인교회들은 먼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통하여 교회성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안디옥교회의 역할처럼 타민족,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 선교중심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교회의 목회 방향은 세계선교를 향해 개선되어야 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대한 차세대 선교신학, 선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1세 목회자들은 차세대 선교를 일으켜야 하는 중대한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한인교회는 세계선교에 있어서 차세대를 일으켜야 하는 시대적 부름을 듣고 있다. 한인교회들은 차세대 선교사들 배출하여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민교회의 역사를 볼 때 아직은 차세대 가운데 장기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 못하고 있지만 목회의 방향정립과 협력체제를 통하여 차세대 가운데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한인교회의 차세대 선교 활성화를 통해서 미주안에 있는 다른 민족의 이민교회들에게도 새로운 선교전략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린 청년들이 Haystack 기도모임후 미국의 선교가 꽃을 피운지 200년이 되었다. 이제 다시 차세대에 눈을 돌려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200년전에는 오직 백인들이였지만 지금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속에서 성장한 모든 차세대들이 선교의 주역이 될 시대가 되었다. 우선 한인교회의 차세대들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흑인, 남미 히스패닉, 백인등 인종과 피부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하자. 그동안 1세 목회자들이 말 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으로 한인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면 차세대들은 1세들의 뜨겁고 헌신된 신앙을 바탕으로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이 현 (M.Div.)
본문: 누가복음18:1~8

제목: 이것이 믿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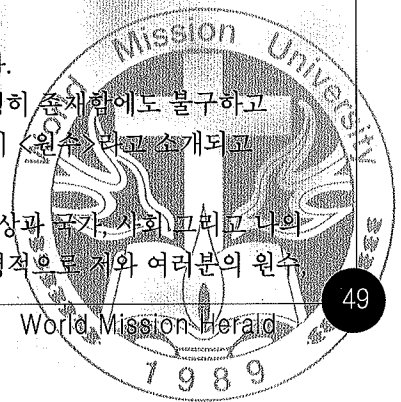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성도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주제로 인해 고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 같이 주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겠습니다.

1.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 재판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재판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판사가 아니고 아마도 도시국가 형태에서 사법권, 행정권, 혹은 입법권까지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고 권력가라 생각됩니다. 당시가 전제군주 시대인 점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이해되며, 생사여탈권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없으십니다. 그 분보다 더 높은 자는 천상, 천하, 지하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십니다. 또 그 분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결코 반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도 천사도 무시하십니다.

*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처녀입니다 (고후1:2). 그러나 한편 우리는 모두 과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신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과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남편을 잃은, 그러나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과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주목 하십시오. 그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이 인물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3절에 보니까 단지 <원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주요인물, 오늘날 이 시대 세상과 국가, 사회 그리고 나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해 있는 인물, 존재적으로 태생적으로 숙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

그의 이름은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2. 문제의 근원을 찾으라
* 문제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2절에 보니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과부는 이 원수와 깊은 원한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철천지원수입니다.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 싸움이 끝나는 조상적부터 내려 온 원수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취미요 특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도적)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를 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의 배후에는 이 원수의 책략과 노림수가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3. 해결 방법을 찾으라
*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 과부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억울하다고 땅을 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의 어리석은 짓은 아예 하지말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분명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리를 행사 하세요. 도시의 시민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지불식간에 원수 마귀에 속아 맥없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 재판관을 찾아가시라.
자, 여기에서 다행스럽게도 과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재판관!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여기 저기 다니며 호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대적하려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 갔습니다.

과부는 지혜로운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참담한 실패를 만났을 때, 돌이킬 수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바, 당신이여, 지체 없이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라! 그것만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니..

* 재판관의 역할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갚아주는 것이다 (원수 갚는 것). 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인 나를 도우시기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말씀 (법)에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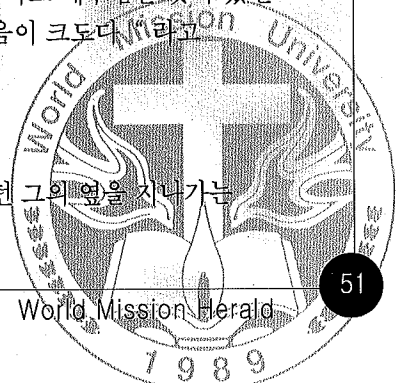
4.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라
* 확신을 가지고.
과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재판관이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첫째 조건은 확신입니다. 들어 주신다는 확신, 이 길만이 살 길이며,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맙니까? 확신의 없음이 그 이유입니다.

* 해결될 때까지.
과부의 끈기와 집념,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과부의 심정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배수진의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5. 이것이 믿음이다
* 기도의 행위 자체가 믿음입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의 고백이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표출하는 성도의 최상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찾은 행위, 그것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각 교회마다 기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믿음이 좋은 자는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기게 해결될 때까지 찾아갔던 과부는 결국 소원을 성취하고야 맙니다. 집념의 기도, 그것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만 믿음 있는 성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마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왔던 헬라여인의 끈질긴 구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마15:28참조)

*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던 그의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른채 지나가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 ”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 ”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더 크게 두 번째 소리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언급하신 <너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디메오의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믿음 > 바로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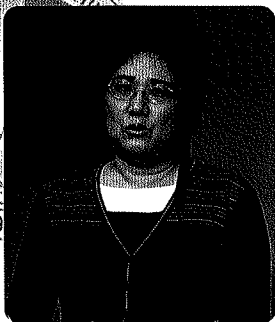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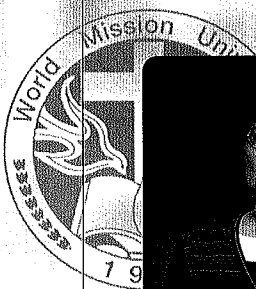
*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 (겔36:37).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62:6,7)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다음 3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사탄의 견고한 진에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셋째, 내가 어느 사이엔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하나님의 큰 일군들 역시 불퇴진의 기도로 일관했던 기도의 용사들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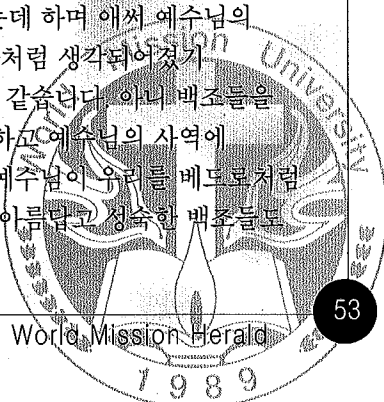
이현일 (B.A.)
본문: 사도행전 3:1~10

제목: 능력있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사도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앉은 뱅이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요” 그러자 앉은뱅이는 무엇을 주는 줄 알고 쳐다봅니다. 그 때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내밉니다. 그리곤 힘있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처럼 능력있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을 때부터라고 생각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는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였으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즉 훌륭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섬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 좌왕하다가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사건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이상의 신적인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확신에 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미국에 오면 한국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온다고 할 만큼 많은 한인들이 기독교인임을 자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서는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타인도 아닌 가족에게 살해 당하는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몇차례가 됩니다. 왜 이처럼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 부터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저는 사역자가 되는 입장에서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혹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앞서지 못하고, 교회도 세상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나 삶은 믿지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만 따라 다니면 복을 받고, 삶이 윤택해지며, 어려운일이 생기면 의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존재나 능력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갈피를 잡지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베드로처럼 세상적 가치관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어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겨 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생활에 충실하였으나 세상적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가치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못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낙오된 미운오리 새끼마냥 이러 채이고 저리 채이며 월드미션대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판단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이러면 안되는데 하며 애써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뒤뚱거리며 쫒아가는 모습이 미운오리 새끼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그런 오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백조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뒤뚱거리며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세우기 위해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름답고 성숙한 백조들도

있지만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사이에서 방황하며 뒤뚱거리고 다니는 미운오리새끼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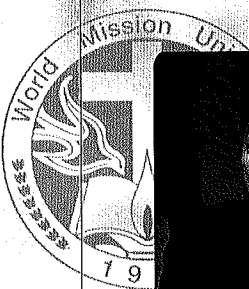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후의 베드로처럼 변화를 받아 확신에 찬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사역자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월드미션대학을 오순절의 다락방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공부할 때에, 때가되면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시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전도사나 목사가 되기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공부를 "A" 를 받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고 사모하면서 베드로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화요 설교시간에 재학생이신 김상중 선교사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성경을 암송하시는 예수님" 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신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확실히 우리안에 가지게 될때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목회철학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사람들처럼 좀 더 큰 교회, 알아주는 목사, 전도사가 되기 위해 힘쓰게 되고, 성도들도 자연 세상적 가치관으로 표준을 삼게 되어 좋은집, 좋은학교,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두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허약한 신자들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버전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현일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선포한 것처럼, 영적인 앉은뱅이인 자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적으로 가치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제게 있습니다. 이걸 당신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십시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주 익성 (B.A.)
본문: 요한복음 6:66~67

제목: 제자와 사도

"이러므로 제자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샬리아이며 샬리아는 파견된자 또는 보냄을 받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하는일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상사역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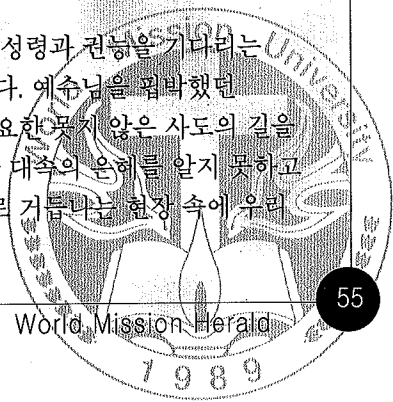
요한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눈뜬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중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는 누군가를 추종하는 무리를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었지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선택된자들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가시기 전에도 파견된자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수 없이 늘어 났지만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사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 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수 있다" 고 말씀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사도된 자 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님 자신처럼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는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바로 사도의 소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도한 사람들 입니다.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임무를 다 하였던 초대교회사도들처럼 복음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이 주님의 명령일진대 우리는 주님 닮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은 사모하면서 초대교회의 핍박은 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미션대학 학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선지동산에서 배우고 있는 제자들 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권능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열 세번째 사도로 베드로와 요한 못지 않은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족속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는 현장 속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일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속죄물로 오실수 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땅 이 모든 메시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불확실과 다시 살아 날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우리 사역에 분명 장애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참으로 제자 된 것은 "여우와 공중의 새는 거처가 있으되 인자처럼 머리둘 곳이 없을지라도 나를 따라 오너라 할때에 즉시 순종하는 열두제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월드미션의 학우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 한 주님께서는 저희 월드미션을 지켜주시며 사랑하여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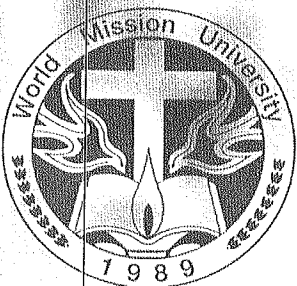
그 한명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 내일의 사도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월드미션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월드미션 이름처럼 세계를 품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명순 (M.Div.)
본문: 누가복음 9:23 갈라디아서 2:20

제목: 나도 회복될 수 있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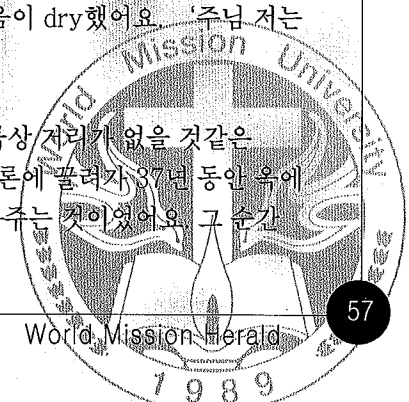
'자기를 부인한다' 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어쩌면 구름 잡는 것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영, 혼 그리고 육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우리의 '영' 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나의 영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나의 영혼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는지요. 우리 대부분은 모래와 설탕이 섞여 있는 것 같이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으며, 영의 일인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나의 열심으로 했던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육' 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 운동하고 유기농 음식 먹고,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의 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공부하고 예술 활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혼'에 모든 시간, 돈 , 열정을 투자하여 자신을 성취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혼'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매일 신문, 잡지에 나오는 기사들이 이를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없는데 이것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즉 '자아'는 '혼'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지, 정, 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적인 능력이지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은 영이 혼에게 명령해서 혼이 육을 다스렸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반대로 육의 욕심이 혼을 다스리고 영이 힘을 못쓰도록 했지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사람은 영은 살아 있지만 혼,육에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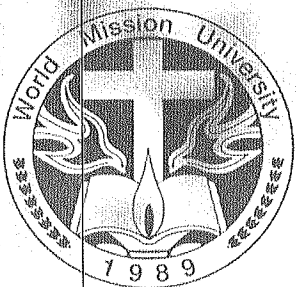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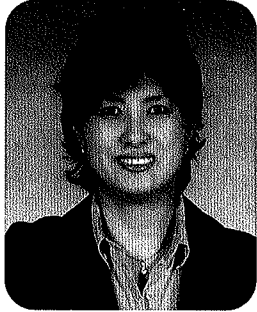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 12;24) 죽어서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싹이 나올 수 있지요. 이 단단한 껍질이 곧 나의 자아를 말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사람의 소리가 나고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지요. 향유 옥합을 생각해 봅시다. 옥합 안에 향유가 들어 있는데 예쁘게 생긴 옥합만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어에 'she broke the ja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14:3). 병이 깨져야 향이 나겠지요. 바로 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후 4:7).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질그릇이 깨지기 전에는 우리는 보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도 뒤 끝이 없어' 아닙니다. 자아입니다.

저는 중학교때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대학교에서 어느 선교 단체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옮겼습니다. 있는 곳에서 제 나름대로 항상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이 있었지요.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1년에 한두번씩 단기 선교 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보고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물론 가끔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는 했지요. 그러나 저는 목말랐어요. 항상 마음이 dry했어요. '주님 저는 사막같아요.'

어느 날 왕하 25:27-30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묵상 거리가 없을 것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주는 것이였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어요. 제가 믿음도 없었지만 명동 성당에서 12월에 영세 받은 후 그 달이 정확히 37년째 되는 12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감옥에서 꺼낸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먹게 하겠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너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옥에 놔 두셨나요.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도 없었는데. 만델라도 26년인가 있었고…'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저 깊은 어디엔가 납같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나의 자아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자아가 무게로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영혼의 무게가 80g이라고 쓴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날부터 얼마 동안 차만 타면 선포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 이제 너는 떠나! 이제는 주님이 온전히 다스릴꺼야!' 전에는 제가 참 씩씩했었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나의 자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몸에 힘이 빠지면서 실제로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 후로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지요.

제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긴 세월을 이 문제를 안고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른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정말 길고 아깝다 생각했었는데 그에 못지 않은 세월을 저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그 날 아침에 보았던 Q.T.말씀의 제목이 '나도 회복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 미
B.A. 15회 졸업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눈 속에는 하늘이 있어

너의 가슴에는 천국이 있어

너의 미소 햇살로 가득한 날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

광야도 궁전이 되네

너의 영혼에 빛난 이름 있어

너의 삶에 새 노래 가득 하리

네 가는 발자국마다 주님의 향기

너로 인해 모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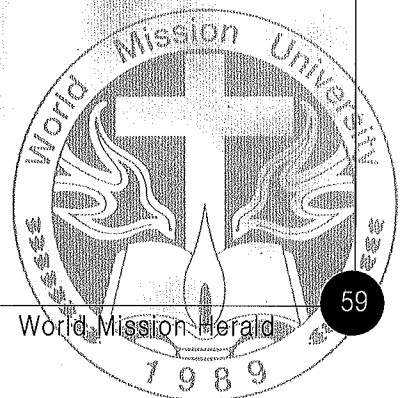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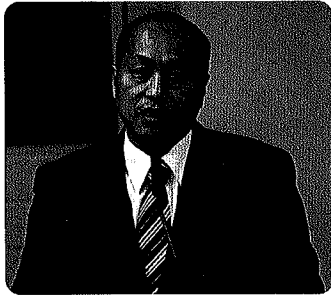
살아나기를 나 기도하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의 숨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의 분신

지상에서 영원을 이으며 너 주의 기쁨되리

지상에서 영원을 이으며 너 주의 자랑이 되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축복송)

오광탁 (M.Div.)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월드 미션에 들어 온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되었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현재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과정마다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저의 집안에는 원래 믿지 않았고 시골에서 자랐기에 교회는 생각도 못하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으며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고등학교는 천주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는 천주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절에도 다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게 되어 그만 두었는데 지금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군을 제대하고 82년 가을에 미국에 오게 되었고 나성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직장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후에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마음놓고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자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말로만 성도 아닌 성도요 교인 아닌 교인으로 성전 뜰만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고 손짓을 하셨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저는 그저 평신도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2002년 1월에 안수기도를 받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도 아닙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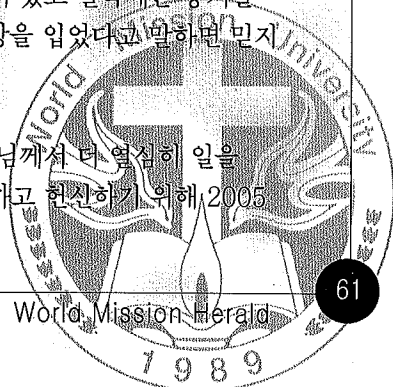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집사님이 부담이 될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는 순종해라고 하셨으면 내 알았습니다하고 순종할텐데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도마처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한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저는 아닌데 정말로 제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뭔가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서 평상시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일을 해 달라는 전화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화요일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다음날 수요일도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가 지니면서 깨달음을 주셨고 제 입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 한 가지 욕심이 생겨서 부흥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월드미션에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월드미션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른 신학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더니 월드미션 대학교에 가라고 하셔서 2002년 가을학기에 월드미션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2004년 3월 29일 일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팔과 머리, 그리고 얼굴까지 화상을 입고 2층 높이의 사다리에서 아래 콩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떨어지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생각 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한다고 했을때 네가 다 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비록 화상을 입고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제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콩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는데 상처도 없고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내가 너를 써 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억지로 쉬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비록 화상은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은 하나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3개월을 쉬게 하셨습니다.

화상을 입고 집에 들어 갔는데 아내의 말이 자신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화상을 입고 집에 왔는데도 걱정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3개월동안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는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팔뚝에는 증거를 삼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남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학교와 교수님과 학우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2005

년에 제 16대 학생회에 김 영준 회장을 모시고 부회장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제 17대 학생회 김 덕호 회장을 모시고 기획 팀장으로 봉사하며 이 기간동안 임시 총회를 통해서 학생회 임기를 변경함으로 가을학기에서 봄학기까지로 결정이 되어 2007년 봄학기를 마치기 전에 학생 총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제 18대 학생회 화장으로 세워주셔서 1년 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교수님과 학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반을 학생회를 섬기다 보니 회장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 발전할 수 있는 선거 공약인데도 학우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결국은 이행을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는 선거 공약을 안했는데 어떤 학우는 잘 했다고도 하고 어떤 학우는 불평을 하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1년동안 학생회를 인도하면서 진정으로 지도자의 위치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어려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임원들과 묵묵히 바라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깨달음과 격려를 주셨던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의 도움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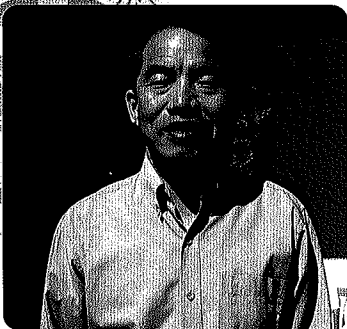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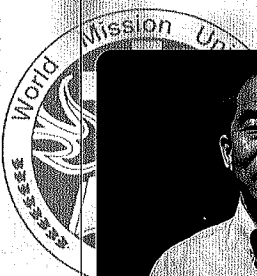
아무쪼록 우리 월드미션대학교가 늘 우리 총장님이 신입생 환영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신 것같이 우리 학교가 서부의 하바드 대학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학교에서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기숙사의 완공과 학교 캠퍼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 시켜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고 하신 것과같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와 교수님과 학교에 다니든 통신으로 공부를 하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 18대 학생회장 오 광탁 학우 드림

제 18대 학생회 임원단
주익성, 김광영, 전금자, 김명구, 왕영신, 김현진, 조광범, 오광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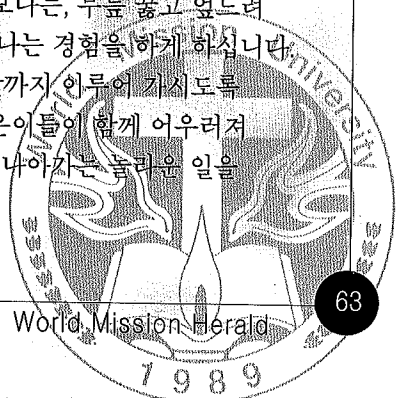
김인철 (M.Div.)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우리네 인생길에서 필요한 많은 것 중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만큼 우리의 여정을 풍성하게하고 값지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지의 곳에 여행을 가서 맛보게 되는 경이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삶이 단조롭고 열정이 식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때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욱 이러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도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신도 전임 사역자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사역에 참여하면서, 여러 필요가 있어서 월드미션대학교 원격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다가 2007년 1월에 도미하여 남은 과정을 마치고 2008년 6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해외 선교 현장에서의 삶을 꿈꾸고 기도하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이 등을 떼밀어 보내셔서 갑작스럽게 이곳에 와서 생존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 순종하며, 또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시도는 하나의 몸부림이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선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또 딸린 식구가 넷이나 되고 아무런 호구지책도 없이, 아는 혈육도 친구도 없는 LA에 온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이며, 여정이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난 1년간의 이곳 (LA, WMU)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끝없는 도전을 즐기며 사는 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동안 주님은 새로운 귀한 만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아직은 어설픈 면이 있음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월드미션에서, 동양선교교회에서, St. John's Presbyterian Church에서, 그리고 영어 클래스에서 또 이웃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만남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까지 서로 감사하는 만남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후광을 비치며 살 수 있을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생의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그렇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저와 같아야 할진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Role Model로 삼을 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새로운 꿈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기회에 다민족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다민족 교회를 이루는 비전 (계7:9-10)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곳 LA 만큼 다민족,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물을 만난 고기처럼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도전의식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지만 그렇다고 주저앉기 보다는,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걸으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드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민족 다문화의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높이며, 주님 주시는 동일한 비전과 마음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원리를 배웁니다. 속으로 더 여물어가고 더 영글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명을 예비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과정 속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기도 했으나,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설프게 감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걸음을 흉내내보다가 .... 21세기의 새로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꿈꾸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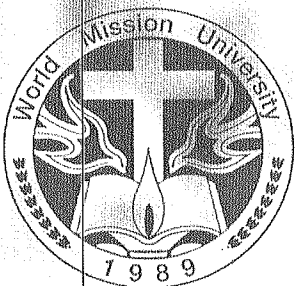
이미경 (M.A.)

군인 정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영화보는 것을 좋아했다. 심지어 동네에 텔레비젼이 몇 대 없었던 시절에도 열심히 이웃집에서 어른들 틈에 끼어앉아 외화를 보곤 하였다. 지금도 영화를 볼 때마다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글자에 머물러 있던 스토리가 입체적으로 살아나서 재연되어 작품이 된다는 사실이다. 고전적인 명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감동을 주고 그 중에서도 잘 만들어진 전쟁 영화는 무거우면서도 다양한 교훈을 받게 된다.

전쟁 영화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생과 사를 다투는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지금은 사라져가는 귀한 정신들중에 하나이기에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동시에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오합지졸같던 병사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며 참된 전우애를 배운다는 결말은 깊이를 더하여 주는 단골 메뉴이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동지애를 가진 주인공은 흠모의 대상이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적 생활을 전쟁으로, 성도들을 군인에 비유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성도의 영적인 현실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나 선택 사항으로 해석하고, 군인 정신으로 산다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민간인으로 살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 운명을 함께 하는 하늘에 속한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군인 정신은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리더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리더의 영향력만큼이나 질서를 따라 자리를 지키며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구성원의 역할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전쟁에 있어 리더쉽, 팀웍, 훈련,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전술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은 군인 정신에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기대하는 군인 정신은 인해전술용이 아니라 각개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준일 것이다. 물론 군인 정신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세워주고 인내하면서 함께 전쟁을 치루는 가운데 배우고 자라감으로 각자가 진정한 군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일하는 리더들은 적의 최우선 공격 대상이기에 우리의 측면

지원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이런 치열한 전투의 상황에서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전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비극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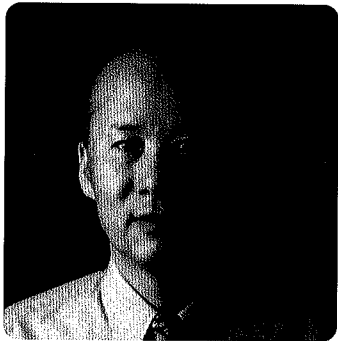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지친 성도들을 싸매주고 치료하는 병원, 군인 정신을 가르치는 사관학교, 전사를 키워내는 훈련소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주어진 자리에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리를 지키는 무명의 사복 군인들을 생각하면 동지처럼 느껴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손자병법보다 확실한 전술 교본이며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것이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서 사령관이 되시기에 영광이고 특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 라는 찬송을 군가처럼 부르면서 세상속으로 나아간다. 마치 전쟁 영화속 무명의 병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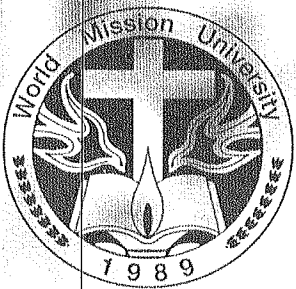
이홍주 (M.Div)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인간의 존재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생명체는 존재한다고 하여서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하등의 유기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외부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그의 존재의 범위를 넓혀가며 성장한다. 인간은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엄성과 자율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역시 모든 창조된 유기체가 지배 받고 있는 본질적인 존재의 원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의미는 자신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와의 모든 관계속에서만 규정되고 인식되어진다. 주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는 단순한 생명체일 뿐 어떤 특별한 의미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역사속의 전통과 문화가 형성한 틀안에서 자라며 교육받으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고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치 체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여간다.

누가 나를,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 주느냐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형태의 부름일지라도 그 부름에 본질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 굳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체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세계의 가치 체계 속에서 한 인간의 존재와 의미는 규정되어진다. 이처럼 인간은 존재의 명명과 그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종속되어 실존한다.

하나님은 그 분의 자유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은 그 분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불러주심이다. 그리고 그 분의 자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공유하시고자 하시는 초대이시다. 이 자유함의 초대는 우리를 이제까지 피조된 세계에 종속되었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하심에 동참하여 그 분의 창조의 자유하심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paradigm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여전히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그들이 불러주는 이름 속에서 살아가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응답할 때만이다. 그때에 인간은 마른뼈에서 새롭게 살아나 나의 왕,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눈뜨게 된다. 이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며, 변질되지 않으며, 존재의 무한한 자유와 성숙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불러주는 모든 몸짓들은 이 부르심 속에서 출발할 때에 비로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계속하여 울려 퍼지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강모세 / 곽건준 / 곽동호 / 금재연 / 김건태 / 김계환 / 김금자 / 김대성 / 김두환 / 김범수 / 김사라 / 김상연 / 김세웅 / 김영국 / 김영만 / 김영주 / 김인희 / 김재권 / 김정기 / 김지수 / 김진광 / 김진영 / 김진호 / 김창국 / 김창범 / 김창호 / 김채광 / 김청익 / 김충일 / 김해룡 / 김현숙 / 김휘웅 / 남조웅 / 마사웅 / 마창식 / 명잔 / 박리챠드 / 박재호 / 박제임스 / 박태호 / 박평식 / 방연옥 헬렌 / 박옥/ 배기복 / 백형권 / 석태운 / 성광수 / 손석효 / 손주영 / 송인하 / 신동순 / 신병모 / 신재권 / 신재철 / 안광석 / 안의식 / 안정삼 / 양근수 / 엄경자 / 엄창웅 / 여상직 / 오광찬 / 오상헌 / 오재선 / 오태근 / 유문근 / 유수잔 / 윤성환 / 윤정림 / 윤정아 / 윤태중 / 이규태 / 이미옥 / 이병인 / 이병주 / 이승인 / 이재현 / 이정남 / 이정원 / 이중용 / 이태종 / 이필섭 / 이한길 / 이형규 / 이효성 / 이효신 / 임동선 / 임승천 / 임승표 / 임의진 / 임진수 / 장기준 / 장코스모스 / 정광자 / 정문섭 / 정봉모 / 정중섭 / 정진식 / 정호영 / 조왕하 / 조용직 / 조정현 / 주성천 / 진성백 / 최근홍 / 최선영 / 최종원 / 최형기 / 최호춘 / 한긍리 / 한동열 / 한승수 / 한주영 / 한평우 / 함수현 / 허명 / 홍성식 / 홍춘만 / 황재길

연합회 후원

LA OMC (강준민) / 다우니 OMC (남종성) / 로간 OMC (조항목) / 로마한인교회 (한평우) / 발렌시아 OMC (한광덕) / 뷔츠브룩한인교회 (강성구) / 샌디에고 OMC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 세리토스 OMC (석태운) / 쌍파울 OMC (황은철) / 씨애틀 OMC (이중용) / 아리조나 OMC (김용식) / 알라스카 OMC / 오레곤 OMC (이상호) / 유타 OMC (전성호) / 주님의 선교교회 (이인검) / 중부 OMC (임병택) / 콜로라도 OMC (윤경호) / 팜스프링 OMC (이재현) / 한미중앙교회 (김건태) / CLMM (군사랑선교회)

동문회 후원

강성구 / 강태준 / 고영보 / 권인순 / 권재옥 / 김경례 / 김동준 / 김승원 / 김용식 / 김인희 / 김창국 / 김추자 / 김효복 / 남조웅 / 박인호 / 방헬렌 / 백희숙 / 양덕승 / 양성반 / 우상문 / 유정수 / 윤경호 / 윤병완 / 윤성환 / 이명희 / 이상혁 / 이인검 / 이재현 / 이정남 / 이희성 / 임금화 / 임양택 / 장원욱 / 장코스모스 / 정연희 / 조배성 / 조성은 / 조은혜 / 조항목 / 조화진 / 진성백 / 한광덕 / 한석규 / 한은희 / 홍표란

기도후원회

Agron, David / Alvarez, JaRan Choi / Bae, DongLim / Bishop, Chea Sun Shin / Byun, In Hwa / Chae, Sung Hee / Chang, Cosmos / Chang, Yoo Jin / Chang, Hye Jin / Cho, Jae Sung / Cho, Myung Hee / Cho, Sang Cun / Cho, Seoghwan / Cho, Young Kern / Choi, Hyun Sook / Choi, Ja Ran / Choi, Min Young / Choi, Young Soon / Chon, Johnny / Chun, Daniel J. / Chun (Nam), Kasey / Chung Seong Ja / Chung, Ki Yeon / Chung, Young A / Cosmetic City / Doh, Eun Joo / Dong, Pil Ryeo / F.S.W. / Ham, Dong J. / Ham, Jung Hee / Han, Esther Mi Kyung / Han, Grace / Hahn, Mi Kyung / Han, Pyung W. /Hong, Jung Nam / Hur, Myong / Im, Sung Sil / Jeon, HaeKyung / Jeon, Yong Gyu / Jeong, Soon Duk / Jeong, Young Sook / Jun, Sung Do / Jung, Bong Mo / Jung, Jong Shik / Jung, Young A. / Kang, Christine / Kang, Daniel Dae Hong / Kang, Joo Hee / Kang, Tae Joon / Kang, Young Sun / Kil, In Sun / Kil, Jong Tae / Kim, Bok Sun / Kim Christine / Kim, Chun Hee / Kim, Chung Joo / Kim, David / Kim, Dae Young / Kim, Duck Ho / Kim, Duk Kil / Kim, Hyun Sook / Kim, Evelyn S. / Kim, Genie / Kim, Grace / Kim, Hyun Ja / Kim, Hyun Kil / Kim, Kwang Hoon / Kim, Kwon Soo & Jane / Kim, Kyong Nyo / Kim, Kyung Sook / Kim, Peter Kwans / Kim, Rachel / Kim, Sang / Kim, Soyeong / Kim, Steve / Kim, Yong Chorl / Kim, Young Jong / Kwon, Bong Nyo / Kwon, Hyuk Min / Kwon, Jung Ae / Kwon, Moon Ja / Lee, Brad D. / Lee, Chun Do / Lee, Daniel S. / Lee, David / Lee, Dong Ho / Lee, Ellen W. / Lee, Eunice H. / Lee, Hannah / Lee, Hong Il / Lee, Jessica / Lee, Jin Dong / Lee, Jenny / Lee, Jessica Yong C. / Lee, Jong Ae / Lee, Jong Do / Lee, Keum Hee / Lee, Ki Young / Lee, Kyong / Lee, Kyudong / Lee, Kyung S. / Lee, Luk Rim / Lee, Myo Hwan / Lee, Sang Hyouk / Lee, Sang Tae / Lee, Si Ja / Lee, Sok Chu / Lee, Soo Hoon / Lee, Soon Ja / Lee, Sung Yon / Lee, Won Yong / Lee, Won Young / Lee, Yong C. Jessica / Lee, Young / Lee, Young Ae / Lim, Hyun Jae / Lim, Kum Hwa / Lim, Sung Sil / L.S.I. / L.T.M. / McLain, Ginny / Nam, Lydia / Nam, Sang Il /

기도후원회

Nokdoo Graphic Printing / Oh, Hee Jung / Oh, Peter Sungtae / Pae, David / Pae, Eung-Kwon / Park, Byung Mo / Park, Ji Seon / Park, Jin Sang / Park, Jung R. / Park, Kap Young / Park, Mi Sung / Park, Mi Sook Choi / Park, Myung Hee / Park, Ruth Kim / Park, So Ra / Park, Soo Bok / Park, Sunki / Park, Sung Soo / Park, YoonWoo / Sans Souci, LLC / Seo, Young Soo / Shin, Boo Nam / Shin, Hyun Woo / Shin, Kyong Ho / Song, Moon Sang / Suh, Dong Min / Sumpaio, Mun Cha / Um, Kyung Choon / Um, Sang Ho / Won, In Hye / Woo, Sanghun / Yang, Duk Sung / Yang, Young Eun / Yeo, Byung Hyun / Yeo, Byung Hyun / Yeo, Esther / Yeo, HyunJung / Yeo, Uk Jae / Yoo, Gil Sang / Yoo, Sung Ryu/ Yoon, Sang Suk / Yoon, Sang Wook

김성종 / 김영태 / 노을래 / 윤기성 / 온성철 / 이홍주 / 정연희 / Ahn, Il Chan / Chun, KwangIl / Kim, Sang Joong / Lee, Jung Soo / Lim, In Ok / Oh, Sang Hun / Pae, Hye Yung / Park, Woo Sung / Wilsihre State Bank

동양선교교회 기도후원회

강애순 / 강금석 / 강병례 / 강병목 / 강선주 / 강승묵 / 강영혜 / 강정희 / 강종흥 / 강준민, 희종 / 강지미 / 강한나 / 강형묵 / 계옥주 / 고덕유 / 고은현 / 고정희 / 고주현 / 곽광례 / 곽병재 / 구경훈, 연호 / 구자원 / 권재환, 이경미 / 금남이 / 금재연 / 김경이 / 김경자 / 김경호 / 김경호, 현주 / 김금동 / 김금례 / 김금자 / 김기성 / 김기옥 / 김기자 / 김나영 / 김낸시 / 김동석 / 김룻 / 김명진 / 김문숙 / 김문희 / 김미정 / 김보환, 영의 / 김삼중,은희 / 김선영 / 김선욱, 혜랑 / 김선혜 / 김성권 / 김세민 / 김수지 / 김소리 / 김신환, 박슬기 / 김영숙 / 김영애 / 김영옥 (0403) / 김애순 / 김옥남 / 김옥순 / 김옥임 / 김옥자 / 김옥저 / 김우월 / 김인곤 / 김인애 / 김재순 / 김재용, 화실 / 김재한 / 김정우 / 김정이 / 김정화 / 김정환, 선희 / 김조안나 / 김종길 / 김지성 / 김지윤 / 김창범 (예은) / 김추자 / 김충걸 / 김충일, 복순 / 김헬렌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자 /김혜정 / 김홍선, 성숙 / 김홍순 / 김효신/ 나승자 / 남기문 / 남기안 / 남만식 / 노애린 / 노재희 / 노정민 / 마정순 / 문동숙 / 문정희 / 문지민 / 문지원 / 박경남 / 박경희 / 박논세 / 박송학 / 박수복 / 박수형 / 박연숙 / 박영부 / 박옥 / 박옥희 / 박재옥 / 박정애 / 박종순 / 박청원 / 박캐롤, 영환 / 박하늘 / 박현숙 / 박환, 정희 / 박호석 / 방연옥 / 배성은, 혜영 / 백기돈, 봉님 / 백형래 / 성광수 / 성병헌 / 손홍심 / 송대순 / 송숙희 / 송혜숙 / 승정희 / 승지수 / 신정민 / 신태문 / 신혜나 / 심옥선 / 안성실 / 안옥순 / 안의식, 옥자 / 안종순 / 안현숙 / 양순옥 / 양승달 / 양아경 / 양영옥 / 양지훈, 진희 / 양학봉 / 엄경춘 / 엄옥엽 / 여상락희 / 염혜경 / 오광찬 / 오명엽 / 오명순 / 오윤표 / 원세현 / 원재수 / 유금자 / 유문식 / 유순의 (9043) / 유월선 / 유정숙 / 유태분 / 유현숙 / 윤건, 혜건 / 윤미진 / 윤선영 / 윤에스더 / 윤응숙 / 윤정림 / 윤준 / 윤창섭 / 윤희석 / 윤희원 / 이경순 / 이광열 / 이규현. 명순 / 이기남 / 이그레이스 / 이금선 / 이금춘 / 이레베카 / 이마리아 / 이명섭 / 이명순 / 이명일 / 이병걸 / 이복선 / 이성희 / 이순섭 / 이승기 / 이연순 / 이영희 / 이옥선 / 이원석 / 이윤동 / 이은혜 / 이인숙 / 이인식 / 이재순 / 이정선 / 이정숙 / 이정순 / 이정원 / 이종만, 수단 / 이종찬, 경혜 / 이종현 / 이주연 / 이주희 / 이중배 / 이진선 / 이찬봉 / 이태길 / 이황윤 / 이형영 / 이혜숙 / 이효신 / 이희범 / 임경숙 / 임동선 / 임금화 / 임동진 / 임은점 / 임은화 / 임정자 / 임재순 / 장승자 / 장영애 / 장원욱, 지혜 / 장정숙 / 장진재 / 전도화 / 전영식 / 전윤진 / 전중하 / 정광자 / 정데보라 / 정성길 / 정영순 / 정영옥 / 정인숙 / 정의량, 현숙 / 정의정, 용주 / 정행화 / 정화관, 미석 / 정희성, 선희 / 제임스 스미스 / 조명희 / 조순선 / 조순애 / 조아나, 명기 / 조웅래 / 조윤희 / 조향숙 / 조현희 / 주익성 / 주정현 / 주화순 / 진강일, 예경 / 차귀동 / 차순임 / 차영숙 / 천영민 / 천효수 / 채순임 / 최남숙 / 최명용 / 최미선 / 최미정 / 최수남 / 최승희 / 최신자 / 최영은 / 최의송 / 최자란 / 최재호, 미경 / 최종열 / 최주희 / 최형기, 미자 / 최희숙 / 치동열 / 한규환, 영숙 / 한동희, 만혜 / 한승수, 승향 / 한안나 / 한영희 / 한용섭 / 한인실 / 함재목 / 함정희 / 허명 / 홍기영 / 홍명주 / 홍병희 / 홍세욱 / 홍수현 / 홍옥선 / 홍은옥 / 홍정혜 / 홍재은 / 홍조시아 / 홍주희 / 황봉자 / 황재룡, 미자 / 황화진 / 회원번호9421-2 / Jin, Hui / Kang, Jimmy / Kang, Tommy / Kim, Stacy J. / Lee, In Sook / Lee, Rebecca S. / Myung, John / Yoon, E.S.

2008

월드미션대학교 기숙사 조감도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